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社說 敬老의美德

一

敬老는 朝鮮의 美德이다。우리는 우리네 父祖의 그 美德을 잘 繼承해 가기 힘써야 할 것이다。勿論 敬老라고 말하면 우리는 얼른 젊은이의 潑剌한 行動을 制裁하고 淸新한 생각을 抹殺하여써 老年者의 頑固한 主張에 唯唯服從을 聯想할는지 모르나 그것은 차라리 主老요 敬老가 아니니 主老로 因하여 우리 社會는 오늘까지 退嬰的 保守的 消極的으로 기울어저 잇슨터라 그러한 弊端은 어디까지 矯正하여야 한다。또 敬老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시 父祖의 나이와 比較하여 尊丈과 王尊丈의 地位를 따지거나 尊丈과 王尊丈의 아페서는 담배를 피우지 안코 술을 마시지 안코 또 그를 앞질러 걸어서는 안된다는 等의 禮節을 의히거나 하는 일을 聯想할는지 모르나 그것은 차라리 遠老요 敬老가 아니니 遠老로 因하여 우리 社會는 在來로부터 老少의 사이를 疏隔시키어 그들間의 思想交換과 行動折衝을 아주 圓滑치 못하게 만들엇던 터라 그러한 習慣은 當然히 업새야한다。

二

孟子는 社會에 處하는 道德으로써 自己네의 늙은이를 늙은이로 待接하는데 미루어서 남의 늙은이를 늙은이로 待接하라고 말하고 또理想政治의 한 現象으로써 머리 힌 사람으로 하여금 道路에서 이거나 지는 것이 업슬것을 들엇다。自己父祖가 老年에不拘코 짐을지거나 이고 길을 것는다면 그 子孫된 者의 마음이 果然 어떠할것인가。그짐을 自己로서 바더서 저서 그老年의 父祖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苦痛을 덜게 하고자 할것이 아닌가。自己의 父祖에 對한 그 마음을 미루어 一般老年者에 미치라는것이 敬老의 가장中心되는 點일것이요 그러한 敬老의 思想은 人類社會의 한아름다운 表現이라 말하지 아할수업는 것이다。우리는 個人으로 自己의 父祖를 奉養할 義務를 지는것과 조금도 다름이어서 社會的으로 모든 老年者를 奉養할 義務를 지고잇는것을 이저서는 안된다。歐米先進國의 養老制度를 볼때는 敬老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로서 一種의 赧顔함을 禁치못하는바다。

三

在來의 主老와 遠老에 對한 反動的 現象인지는 모르거니와 近者에 이르러 우리 社會에는 一部輕薄한 靑少年間에 侮老의 傾向조차 流行하지 안는가 疑心한다。그들은 自己의 父祖를 虐待하기를 反掌키보다 더쉽게 하는터이매 남의 父祖에 對한 侮敬은 辜論할 餘地조차 업는 것이다。主老와 遠老의 弊害가 過去의 歷史에 비치어 決코 적지안혼것은 모르지안치마는 그래도 侮老의 傾向에 比하여는 몃倍 나흔것이 아닐까。이러한傾向이 一部나마라도 無忌憚하게 流行하는것을 許諾한다면 그全社會에 미치는 精神的 惡影響을 장차 어찌할것인가。지금 京城府에서는 家庭報國日을 期하여 敬老會를 開催하고 全府內 八十歲 以上의 高齡一千五百名을 招待하리라고 한다。우리는 뜻 잇는 京城府의 이 行事를 機會삼아 써 敬老의 根本的 意義를 몃마디 究明하여 一般世人의 一省을 促코자 한다。

現在經濟力에照應 新規要求查定峻嚴

明年度豫算案大藏省議에附議

(寫眞은 靑木藏相)

【東京電話同盟】總額七十億을 超過하는 明年度豫算에 對한 大藏省主計局의 查定은 九月以來 一個月에 亘한 編成工作을 終了하고 八日부터 豫算省議에 올니기로되엿는데 主計局의 方針으로서는 于先 物資需給關係에 際하여 文治豫算으로부터시作하여 漸次各省의 查定原案을 附議하고 今週中에 大略省議를 終了한後 各省과 折衝을 開始하고 省議決定의 結果에 至하여 늣저도二十八日에 豫算閣議를 開催하고 大藏省查定原案을 附議하려는 意向이다 또 今日까지의 主計局查定의 經過에 徵하면 事變下第四年度 長期建設段階에 對應하여 東亞新秩序建設에 邁進하기爲하여 事變關係 經費의 膨脹을 보는것은 어느程度 不得已한것이다 이外에 明年度의 各省의 要求補은 國防充實 國家總動員體制의 整備 生産力擴充貿易振興 銃後施設等 各般의 重要經費中에는 各般에 波及하는 經費를 包含하고 잇서서 이들 輕重의 度를 比較較量하기에는 主計局으로서는 大端한 努力을 하고잇는 模樣이다 特히 明年度豫算은 例年의 歲出膨脹의 結果로 標準豫算이 이미 三十七、八億에 達하고 또國債費、恩給費、爲替差損費와 가튼 所謂事務的經費의 增加가 顯著하게되어잇기 때문에 이것도 當然히 經費에 包含한後 豫算總額은 物動計劃、公債消化力等의 經濟力과 調和하려면 新規要求에 對한 查定은 極히峻嚴하게안흘수업기 때문에 追加豫算을 原則으로 一切 認定하지안흘方針下에 總額을 四十七、八億으로하고 各種要求額을 壓縮하려하고잇다 但 右查定에는 臨時軍事費財源으로 同會計에 繰入될 增稅收入과 稅制改革案에依하여 地方에 公布될分與稅收入과 가튼 所謂『振替會計』가될 歲出會計를 包含하고잇지안흐니까 이를 合計하면 豫算金額의 額面은 今日에 잇서서 이미 五十億圓을 突破하고잇는셈이다 또 明年度豫算編成의 重點인 國防充實로서의 陸軍에서는 在滿兵力의 充實 新式機械化部隊의 裝備等을 包含한 新規國防計畫이 잇고 또海軍에서는 列國建艦競爭에 對處한 第四次補充計畫의 追加等이 新規要求로 提出되어잇서서 豫算省議에서 이에對한 查定案을 檢討한後 主計局查定原案보다도 어느程度의 膨脹을 未免하게 되지나안을가 觀測하고잇다 이에對하여 企畫院의 明年度物動計畫이 如何한 程度까지 財政上의 彈力性을 가지고잇는가에 明年度豫算編成의 열쇠가 잇는것으로보인다

石炭、銑鐵에集中

滿洲國明年度生産計畫

【新京七日發同盟】滿洲國産業五個年計畫은 不測의諸情勢의 變轉으로 資材努力의 調達難을克服하고 所期의 目的達成에 邁進하고잇는데 今年度에도 압으로 二個月餘로 計畫第四年度를 마지하고 잇는이지음 滿洲國政府는 最近歐洲動亂의勃發、支那事變의進展等 四圍의 情勢의變轉에依하여 生産力擴充에 必要한 資材調達의 豫測에相當한變更을 아니할수업게되므로 五個年計畫의 來年度遂行에 對하여서는 現實의情勢에 立脚한實行計畫案을 樹立할必要切迫을느끼고 目下歐洲의動向、支那事變의 推移를보고、日滿物動計畫樹立과 照應하여 計畫立案을 進行시키고 잇다 또來年度의 計畫은 目下의 資材調達狀態로보아 石炭과 銑鐵에 가장主力을 두重點主義의 强化로나타날것은 必至의事實이라한다 今次實行計畫樹立에當하여 注目할만한것은 政府가實行擔當者인 特殊會社의 計畫을 基礎로 綜合的計畫을 樹立한다는點에 立案의 큰進步가잇다 目下政府의 要求에 依하여 各會社에서는 實際部門에對한計畫을 樹立中으로 政府에서 이것을 有機的으로 集大成한後 日本政府當局과 資材調達其他에對하여 折衝하게될것으로 이에對하여 日本側에서도 日滿을 一體로한 生産力擴充計畫을 樹立하려는點에잇서서 時局認識에큰 向上을 보히것은 滿洲의 日滿經濟協議會에서도 볼수잇던것이며 이點은 대단히 期待되어잇다 單只歐洲戰局의動向은 아직까지 判然치안코 歐洲로부터資材輸入의將來에對한豫測도 極히困難한 實情에잇서서 計畫의決定까지에는 아직相當한 時日과 曲折이잇슬것이라고한다

滿洲大豆의 對歐輸送問題

【新京七日發同盟】六日開催된中銀主催時局經濟懇談會에서 大村正金支配人 其他로부터 歐洲戰亂以前에 滿洲로부터 獨逸로向하여 積出한大豆로 英國의拿捕를 回避하고 中立國港口에 積置되어잇는것의 處置에關한 報告其他 現下國際時局下의 滿洲國貿易方策에 對하여 各種報告와意見을 開陳하엿는데 그主要한것은 다음과갓다

歐洲動亂前 大豆二萬三千五百噸(約三百九十四萬圓)을 積載出滿한獨逸船中 英國의拿捕를避하여 中立國의港灣에 逃避한 것은 四隻으로 此等大豆處置에關하여 折衝한結果 正金銀行의 證明이잇스면 引渡에應하기로 交涉이되엇다 따라서 日滿船을 回航시켜 中立國으로 轉賣할수잇슬것이다

一、스칸디나비아方面에對한輸送루트의豫想은섯스나 對獨海上[illegible]

天皇陛下、今日

近衛師團演習을天覽

【御殿場電話同盟】恐懼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드디어 今八日錦旗를 富士裾野演習場에進駐하옵시사 親히近衛師團의演習을 天覽하시옵는바 精强皇軍의 精華禁闕守護의 御親兵으로서 日常訓練의成果를 陛下의御馬前에서보여드리고자 勇躍한演習은 七日朝來 各各活潑한行動을 開始하여 戰機바야흐로 成熟하여 富士의下 裾野原은 이날을 압두고 光榮에빗나고잇다 먼저 櫻田少將指揮의 北軍近衛混成旅團은 七日正午頃에는 大野原에 進軍하여 敵前陣地의 增强을行하고 戰車、砲兵、騎砲各部隊도 各各 配備에나아가고 또 騎兵集團은 멀리 十里木方面으로부터 吉原方面에進出、이에北軍은 陣地前의敵을 一擧殲滅하려고 치운高原의 夜氣속에 待機하며 이에 對하여 駿豆地方攻略의 重圖下에 李王少將殿下麾下의南軍近衛混成旅團은 沼津狩野川에 集結、七日 日沒과함께 沼津附近으로부터 夜陰을 뚤코 大野原南端에 進出、前面의敵陣에依據한 北軍에對하여 開進配置를 取하고 午前九時頃에 一齊攻擊의 機會를 노리고잇다 一方航空隊는 七日朝來高原上空의 白雲中에 壯烈한 空中戰을展開、兩軍飛行隊는日沒과함께 基地에 翔歸하여 翌日의 決戰에 備하고잇다 八日岳麓의 制空權을 爭하는 一大決戰이 近迫하여 異常한 緊迫裡에 밤을 새이고하고잇다 八日 天皇陛下께옵서는 嚴肅한 御軍裝을 입으옵시고 午前八時十五分 沼津御用邸西附屬邸를 發御、同八時三十分 沼津驛御發、御召列車로 同九時十分 御殿場驛御着 略式自動車로 錦織의山野 御野立所에 行幸、御陪觀의 秩父宮殿下와 御對面 畑陸相、畑侍從武官長以下 各將星等에 賜謁하옵신後 親히 御乘馬白雪을 타옵시고 燦然한天皇旗를 先頭로 大野原一帶의 戰線二十數里를 御巡閱하옵시고 午後三時半 發御 同五十分御殿場驛御發車 同四時二十分 沼津驛御着車로 沼津御用邸西附屬邸에 還御하옵실御豫定이시다

廣西省要衝猛爆

【香港七日發同盟】桂林來電에依하면 昨六日午前日本荒鷲部隊의 各編隊는 廣西省各要衝을 猛爆하엿다 即 一編隊는 同日午前八時 右江流域의要衝 邕安、果德(廣西省)의 軍事施設을 猛爆하엿고 또 他部隊는 同時刻에 鬱江流域의 重要據點 貴縣上空에 나타나 目標를 떠보고 이어서 興業(廣西省)을 偵察하엿다 그리고 他編隊는 廣西省首都 桂林市 西南部의 軍事施設에集中爆을 퍼부어 市內는大混亂을 일으켯다

兵役法施行令 改正內容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七日의定例閣議에서 畑陸相으로부터 兵役法施行令中 改正에關한 改正勅令案內容을 說明하고 正式으로 閣議決定을 보앗스므로 即時上奏、御裁可의手續을取하여 近近公布施行하기로되엇는데 右 改正勅令案全文은 如左하다

兵役法施行令中 如左히改正함

第六十八條第一項第一號中『第一乙種 及 第二乙種』을 『第一乙種 第二乙種及 第三乙種』으로 改正、同條第二號 『第二乙種』下에 『第三乙種』을加하여 『疾病』을 『體格程度及 疾病』으로改함

第七十四條第一號中 『第二乙種』下에 『第三乙種』을加함

第七十五條第一項에 左의但書를 加함

但、師範學校를卒業하고 小學校의敎員에 就職할수잇는 資格을 有하는者는 海軍에잇서서는 이를水兵으로함

第八十條中『朝鮮或은 臺灣』을 『朝鮮臺灣關東州或은滿洲國』으로改하고 『關東州滿洲國』을削除함

第百四十二條第二號中 『領事館及大使館兵事員』을 『領事館』으로改하고 『關東州에잇서서는 警察署長』을 削除함

附則 本令은公布日부터 이를施行함

但第七十五條의 改正規定은昭和十四年十二月一日부터 이를施行함

鐵厚兩專任相補充 對議會關係로年內實現?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專任農相의 設置에依하여 組閣當初의方針인 少數閣僚制를 放棄할수박게업게되고 또 貿易省新設을圍繞하는 外務省의 紛擾事件에서 政府의 弱體를 暴露함에이르럿스므로 內閣强化와 對議會策을目標로하여 鐵道、厚生兩專任大臣補充을 決意하고 阿部首相은 過般閣內의 意向을 打診하고 아울러 政黨方面의 情勢를 探求中이던바 永井、小原兩相은 目下狀態에잇서서는 專任閣僚의 補充을 반드시必要하다고 認定치안코 또政黨方面의 情勢로보아도 政友會는 事實上分裂하고잇서서 어느派로부터 이것을選任할지 또政黨代表의形式에서 任命할것인가 或은 所謂巨物을拔擢하는것인가 크게 考慮를要할바로 政府部內에는 政友會로부터 島田俊雄民政黨으로부터 勝正憲氏를 考慮하는편도잇스나 政、民兩黨이모두各各 候補者를 내다하더라도 政府의생각대로 簡單히 問題를 處理할수잇다고는 到底히 생각할수업고 따라서至今急히 專任閣僚가 實現될것이라고는 생각안되는데 問題가對議會策을 中心으로하는만큼 來議會를 압두고 年內에는 決定될것이라고 생각되어 議會開會期의 切迫에伴하여 政、民兩派의 動向은 活潑이豫想되므로 專任閣僚問題도 또한 漸次表面化될것이라한다

米出廻好成績 內、農兩大臣報告

【東京電話同盟】七日 定例閣議會後各閣僚는 閣僚待合室에 參集하여 當面諸問題에 對하여約一時間동안 여러가지로懇談을하엿는데 席上小原內務酒井農林兩相으로부터 米의出廻에 對하여 如左히注目할만한 報告를하엿다 政府가 六日臨時閣議에서米價引上其他의 諸施策을 決定發表하엿는데 이는 各方面에 매우 好影響을주어 米出廻는 매우 促進을 보게될 模樣으로 山形縣가튼데는 六日中에 查定額以上의 買付[illegible]를하엿다는報告가잇섯다 이러케되면 米穀買入은 好成績을거두게될것이다

米穀販賣買入 委託勅令改正

【東京電話同盟】政府는米穀統制法第十一條의規定에基하여 勅令으로 米의强制買入을 行하기로 되엇슴으로 日本米穀株式會社其他關係業者에게 그販賣또는買入을委託할수잇는方法을 열기爲하여 大正十一年勅令第二百九十九號『政府에서 物品의販賣를 關係業者에게 委託할수잇는境遇에 關한件』을 改正하여

一、『販賣』뿐만아니라 『買入』도委託할수잇슬것

一、米買入에對하여는『米穀需給調節特別會計에附屬시키기爲하여 特히必要한境遇에限함』

이가치 하기爲하여 七日閣議에서 改正勅令案을 決定하여 來十一日公布 即日施行하기로되엇는데右勅令案의 要項은如左하다

▲勅令案要項 大正十二年 勅令第二百九十九號中 如左히改正할것

『政府에서物品을販賣』를『政府에서 物品을 販賣或은買入』으로 그『販賣』를 그『販賣或은買入』으로改正하여 第三號의 다음에 如左한 一項을加할것

第四號 米穀販賣 或은買入할때 但買入에 對하여는 米穀需給調節特別會計에 屬하게하기爲하여 特히必要한境遇에限함

本令은公布日부터 이를施行할것

(參照)大正十二年勅令第二百九十九號 政府에서 物品을 販賣할때는如左한 境遇에限하고 關係業者에게그販賣를 委託할수잇슬것

一、輸出의目的으로써 物品을販賣할때

二、販賣品或은 그副産物을販賣할때

三、林産物或은鑛産物을販賣할때

政友會中立派 調停을提議

代表、久原•中島兩氏訪問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 中立派五人組인 岩田宙造、太田正孝、武田德三郎三氏는 七日午前九時 久原總裁를 訪問하고『時局의 重大한이때에 國民의代表인 政黨은 各派가 서로提携하여 一意奉公의誠을 다하여야 할것인데 이에關하여 民政有志로부터서도 議會에서 各派協調하자는 提言이잇섯다 이와가튼 政機의促進은 黨의現狀에鑑하여 仲裁하겟다는 提言이잇섯다 이와가튼 政機의促進은 [illegible]에빠지지말고 自肅自戒하여 米의齊에 빠지지안흘 條件下에 大賛成이다 또 일의達成에 對하여서도 우리는 內部에잇서서 萬全의努力을하겟다』라고 兩派抗爭의 無意義를說하고 圓滿統一에對하여 進言하엿스며 中島總裁를訪問하고 同樣의進言을하엿는데 이에對하여 兩總裁는모두 進言의趣旨를 諒解하고 充分히考慮하겟다고대답하엿다

小作料調整

搗精制限勅令案附議

【東京電話同盟】國家總動員法第十九條規定에基한 小作料의調整에關한 勅令案要項과 同法第八條에基한 米穀搗精制限에關한 勅令案要項은 九日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開催되는 第八回國家總動員審議會에 附議하기로되엇다

大竹勅選辭表提出

【東京電話同盟】勅選議員大竹貫一氏는 七日貴族院事務局에『老軀其任不堪한다』는 理由로 議員辭職屆를 提出하엿다

米、멕시코市場獲得에全力

【大阪電話同盟】멕시코貿易斡旋所設 七日貿易局 大阪事務所에 接受된 情報에依하면 過般 米國政府가 華盛頓에 中南米二十一個國代表委員會를열어 米國이 此等諸國과의 互惠貿易을 積極的으로 增進시키려는 態度를明白히한以來 米國의 對中南米對策이 注目되어왓던바 最近멕시코 商務官을 增派하고 또在멕시코 米人組織의 商業會議所를 利用하여 새로 商業調查部를開設、멕시코市場의 獲得에 熱中하고잇다 그런데 그宣傳文中에 米國品은 高級이고 在庫品도 豐富하여 取引도 敏速히 進行되고잇다고 述하여 日本品排擊의 暗示的表現을 하고잇는 模樣으로 멕시코에서의 觀測에依하면 米國은 中南米市場을 完全히掌中에 거둘려고 大陸貿易을 擴張하에 供하여도 조타는것을 方針으로 하고잇서 我方으로서도 至急對策樹立이 必要하다고한다

英空軍兵士의 大量養成企圖

【倫敦六日發同盟】英政府는 特殊技能을必要로하는 空軍兵士養成을爲하여 近近南阿聯邦加奈陀等地에 特別訓練學校를 新設키로 決定하엿다고 情報省으로부터 發表되엇다 이와關聯하여 南阿聯邦加奈陀基地의 軍需品補給部도 活潑한活動을하고잇다

湖北省政府 五日에成立

【武昌七日發同盟】更生武漢에新紀元을 劃하는 湖北省政府는全省民의 興望에 對應하여 지난五日午前 十一時 武漢市政府辦事處에서 盛大한 成立式을擧行하엿다 新省長의 重任을지게된何佩浴氏는 拍手를바드며 壇上에올라 政府成立의 經過를陳述하고 이어서『身命을賭하여 省政을爲하여 努力하겟다』고 宣言文을朗讀 新政府의所信을 聲明하여 이에待望의 湖北省政府의 確立을 보게되엇다 新省長 何佩浴氏는 今年六十歲로 我國陸士第四期生의 武人인데 一九一七年부터 四年間 湖北省長으로잇섯고 다시 反將의雄 孫傳芳의 最高顧問으로 活躍하여스며 現 武漢[illegible] 市政府參議府議長이다

日滿司法共助 連絡會議第二日

【新京七日發同盟】日滿司法事務共助連絡會議第二日은 七日午前九時半國務院講堂에서 開會하고 前日同樣張司法大臣、中西司法省書記官等日滿各關係官出席、及川司法部次長이 議長席에 着席한後 六日의 會議에남은 刑事關係에 對하여 協議를 하엿다 午後에는 다시 民事及 行刑關係에 對하여 協議懇談을 遂하고 二日間에 亘한 會議를 마치고 午後四時半에 散會하엿다 또八日에는 午前九時부터 會議出席全員이 中央法館에서 今回의 連絡會議에 關한感想과 今後의 連絡方法에 關하여 여러가지 懇談을 하기로되엇는데 司法共助問題의 重要性에鑑하여 日滿間에 常設委員會設立의 可否問題가 提案되리라한다

"불가리아"를圍繞

列强의外交戰活潑化

【소피아六日發同盟】獨蘇兩國의 빨칸進出態勢에 刺戟되어 勃牙利를圍繞한列强의外交戰은 漸次活潑을加하고잇는데 더욱이 最近에이르러서는 獨、蘇의 積極外交와 伊太利의 中立뿔럭樹立運動 그리고 이우에 英佛牽制工作도加하여 實로複雜한 三角關係를보이고잇다 即

一、폰•파펜駐土獨大使는 안카라에歸任하는途中 六日突然소피아를訪問하고 세이비아노프勃首相과 數時間에亘하여 會談하엿는데 會談內容은 不明하나 폰•파펜大使의 重要地位에비추어 獨逸側의 積極攻勢의意思를 엿볼수잇다

一、新任駐勃蘇聯公使아르카디라브렌티에프氏는 過般보리스三世에게 信任狀을捧呈할시음 伊太利의 東南歐州制覇政策에對한 積極的外交戰의開始를言明 歐洲戰亂의勃發과 英佛土協定成立에따라 빨칸에잇서서의 新情勢에비추어 蘇聯은 勃牙利와 가장緊密한政治關係를 確立하기를 希望한다고말하엿다

一、駐勃 伊太利公使는 今日中에 빨칸情勢檢討를爲하여 베오그라드에서 開催되는 中立國會議를開催할 方針이라고하는데 勃牙利에對하여도 非公式으로 右會議에出席하기를 要請하여왓다 그러나 勃牙利政府는 伊太利의 빨칸中立뿔럭結成의裏面에는 英佛의支持가잇스리라고觀測하고 또는獨蘇에對한 體面도잇스므로 아직이에對한 回答을하지안흔模樣이다

그리고 消息通側의 말에依하면 렌델駐勃英公使는 最近앙카라를訪問하고 土耳其政府에 對하여 一部羅馬尼亞가 勃牙利에게 一部土를 割讓할수잇게 斡旋하도록要請하엿다고하여 土耳其를斡旋役으로 英佛의對빨칸活動도 今後相當히 積極化할것으로보인다

對日武器禁輸論

米반上院議員反駁

【華盛頓六日發同盟】피트맨上院外交委員이 對日武器禁輸斷行을 主張하고잇는 이지음 同氏와함께 第七十二議會에서 對日武器禁輸法案을 提出한 바렌파그(共和黨)氏는 一方的手段으로서 日本에 對한 武器禁輸를 云云하여恐喝的言辭를 弄함은 戰爭에 訴할危險性이 잇다고指摘하여 對日强硬論에 警告를發하엿다

【華盛頓六日發同盟】피트맨上院議員의 五日對日武器禁輸放言은 米國에서도 各方面에 意外의 反響을 喚起하엿는데 同氏와함께 對日禁輸法案을 第七十六議會에 提出한 바렌파그上院議員(共和黨)은 이를反駁하여 如左한 聲明을 發表하엿다

一方的廢棄를目的으로하는 對日武器禁輸와가튼 恫喝을하는것은 容易하게 戰爭으로 引導하는것이므로 이가튼 恫喝的字句를 使用하는것은 警戒치안흐면안된다 米國으로서는 이가튼 恫喝을하지말고 그로大使의 批判的인 虛心坦懷한態度를 具體的實際的常識에依하여『주고밧는다』는 原則에基하여 日米兩國間에 新條約을 締結하기에 努力할것이다 如何間突然한 武斷的態勢를 보이는것은 兩國모두利益되는바가업는것이다 新條約締結을爲

北海의制空權

獨空軍完全掌握

【伯林六日發同盟】獨空軍의 數次에亘한 英艦隊攻擊에 參加한바 있는 某飛行將校는 每番參加하엿던바로 中尉의記者團과의 會見談에依하여 明確히 되엇다 中尉는 獨空軍의 活躍에依하여 獨逸은北海의 制空權뿐만 아니라 制海權도 掌握하엿다고 如左히말하엿다

獨空軍은 今日까지 前後五回 英艦隊攻擊을 企圖하엿는데 每番먼저 獨空軍의 偵察部隊는長時間에亘한 偵察에 依하여 英艦隊의 所在를 確認한後 決行하기로 하엿다 不幸히 五回中겨우 三回밧게 英國艦隊를 發見하지못하엿다 異常한것은 我等이 九月二十三日 英戰艦 로드네이號 리파르스號 후드號 乃至三艦에 따른 航空母艦을 空襲하엿슬때에도 또九月廿九日 파스•오브•포스軍港을 攻擊하엿슬때에도 또 英戰艦을 搜索하기爲하여 數時間에 亘하여 英東海岸을 搜索하여 極度로 低空飛行을 하엿슬때에도 不拘하고 英空軍戰鬪機는 一回도 我軍[illegible] 十月十六日에 [illegible] 포스軍港을 [illegible]하엿슬때도 同樣으로 그때 [illegible] 英艦隊는 北海에서 [illegible] 除外에 全然 [illegible] 完全히 [illegible]된것이다

裁縫하기쉬운미싱 사기조흔月賦
蛇の目ミシン
帝國ミシン株式會社朝鮮總中央店
京城府本町二丁目八十五番地
直營分店全鮮七十七個所

廣告

市況(七日)

◆生糸後引◆
當限 一二〇〇 先限 一二七〇

本社參觀(七日)

▲鎭海公立尋常小學校生徒百三名(引率者鄭仁濟氏)
▲津西公立尋常小學校生徒四十二名(引率者洪淳杓氏)
▲咸北淸津 松坪公立尋常小學校生徒七十五名(引率者權鴻澤氏)

瘦瘠하신분
體質이弱한분
胃腸이弱한분
貧血로冷한분
血行이나뿐분

(右)揭한바와가튼분들은 어무려하여도 體力衰退하여잇스므로 增血作用이 充分히되지못하고따라서 貧血하야 血行不順이 되는것어니와 조곰만추우면 곳感氣에걸리기쉽고 感氣에걸려면 좀체로낫지안히하고 頭痛이나던지 喉頭가아푸던지 發熱이甚하던지 하야 드디여肋膜炎과肺炎가다루를 併發할念慮가엿스니 感氣에걸리지안토록 體力의充實을圖謀하고 體質을强化시키는것이 喫緊한것입니다

(그)러메는 信州特産滋養强壯劑의 養命酒를 朝夕食前에한盞씩 마시며는養命酒속에 醞釀되여잇는 高山貴重藥草의活性精分이 全身의血行을 順調롭게하고 體內의 增血作用을旺盛케하는故로 食事는입에 달어잘하게되며 피가는 고살이올라 體力은充滿해지고 體內의血液循環은 順調로되는故로 아무리추운外氣에 부터쳐도感氣를 모르는健壯한 身體가됩니다。

滋養强壯劑로서
血行不良한분
貧血과冷한분
虛弱體質인분
胃腸衰弱한분
不眠과숨어찬분
呼吸器羸弱한분

全國의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有함 品切의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前金으로 送料不要代金引換으로御紹介합니다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 三圓 [illegible] 四圓

發賣元 信州上伊那郡伊南村大草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澁谷 一六四七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風邪を引かない

用心に何よりも養命酒

戰時版過冬設計

金力이가젓던萬能의術數 物資래야!의單數에還元

돈만가젓스면 무엇이나 구할수잇스리라고 생각하엿던것도 인제는 옛말이되고말앗다 돈보다는 물건이다 돈가지고 구할수업는물건도만치만 물건가지고 살수잇는물건에도 제한이 절로 생기는것이다 돈도 귀하지만 물건이 더 귀해진것은 최근에이 귀하다는 예를 들거랠만이 아니라 그외에도 이루 다어딜수 업슬만큼 만락, 이야말로「돈보다물사자」가맘하는 시대가 오것이다 물론이것은 지나사변 제삼년에 들어가면서 전쟁목적을 위한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귀한시련이요 보람잇는 희생이라할것이다 결하여 구라파에는 다시 제이차대전이 시작되어 압날이 어떠케 될것일는지 짐작을허하지안는 상태에들어가니물사자가귀한 품은 한층더심각해진다 이리하여 내외다단한 전시하의 국민생활은 한층더 긴장된가운데 옛판을물버리고 새각오 미터 생활을다시꾸며나가지 안으면 안되게된것이다…볼리느니 물사가 가 오른다, 쌀이귀하고 연탄이 모자른다 또 무엇무엇이 어떠타……그러나 모든곤난은 용감히 이겨나가지안으면 안될처디의 따제인것이다 그러면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생활을 어떠케 설계를 되꾸어야 할것이냐 한차 치운겨울은 닥처왓거던! 여기에 전시판 파동생계를위하여 각방면인사의말을듯기로한다

物動計畫의强化 徹底히覺悟해야될民需窘塞

總督府資源課 豊島事務官談

물사자동원계획 약하여 물동계획이라새말은 지나사변이후에 우리국민이 비로소가지시작한 말하자면 사변의부산물가른다 기실은 부산물이아니라 사변을수행하여나가는 원동력이다 무력전만가지고 승패를결하던 옛날전쟁과달라서 제일차 구주대전이후의전쟁은 국가총력전의 형태를 나타내고잇서 제일선의무력전으로는 총후의경제전, 사상전기타 나라가가지고잇는 모든힘이 승패의요소가 되는것이다 싸움에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사자를 전쟁목적에총동원하는 국가총동원의 필요한까닭으로서 물동계획은 실로전쟁에 필요한물사자측총동원을 국가가 통제운용하여 나라의힘을 가장유효하게 발휘하지는것이다 그런데 이총동원물사자라는것이 병기, 함선, 탄약으로는 피복, 식량, 의료품비롯하여 의약품, 연료, 전력기타 우리일상생활에가장 밀접한관계를가지고잇는것이란인만큼 물동계획이 강화되면 될수록민간에서 씨이는 부분이 점점적어지게서 우리의생활이 군색하여지는것은 면치못할도리이다 물동계획에잇서서는 군수판게가 첫째, 외국수출품이 둘째, 국내소비측 우리가 쓰는물건은 셋째로야 차례지는것이니 더욱 군색하여질수박게업다 그런데 일만지『뽑힌』의 자급자족을목표로 진행중인 생산력확충계획이 소화십사년도만에 완성되면 일면전쟁, 일면건설에 종사하고도 생활이 상당히 윤택하여질만한 물사가 생산될계산이 것엇던이 이번에버러진 구주동란때문에 생산력확충에필요한물사자가운데를 어오지못하는것이 생기게되어 확충계획이 기정방침대로 수행하기어렵게된사정을 새로 고려에너호면 명년이후의 우리생활은 상당히 군색한것을 각오함필요가 잇다 그러나 아무리 물사자난때문에 생활이 윤택하여진다하여라도 전지장병의 노고에비하여서는 그야말로아무것도아니라고 할수잇지안흘가

총후에서는 조선내물동계획의취지를 도모하여 기회부(企劃部)의 신경을 이미결정하고 오래지안어 사무를시작하기에 이르럿것은 어떠외이기록함이다 수사자물어말하면 총동원계획의 수 알기쉽게이나 물동계획의 수스자는 모두부비사항에 속하는것이므로 일반은 수사자를 알아고하지마는것이 비정상대로진정한 일이다

돈보다物資 ①

彈雨下의廿日 飢餓線突破

金中佐의物資難體驗談

작년 오월하순으로부터 유월하순까지 약한달동안 복지산서성로마진(山西省路馬鎭)이라는곳에서 왜군이 적군과 버티고잇슬때엇다 철로선은 파괴되고 이뒤로군사는 적은 적군은 십만대병으로써 우리를 에워싼다 그러고 수비하시안는 지역을 점령당하여버려서 후방과의 연락은 끈허젓다 당시에우리는 가지가지고 잇는 식량만으로써 살아 안혼대안되게되엇다 쌀 된장 간장등과그바게 부식물(副食物)등은 조금식 밧게 업섯다 그래서 하루에 세끼식 먹던것을 한끼식먹게되고 나중에는 죽을 끄려먹엇다 쌀은 비에마저서 밥분이나 섞엇기때문에밥을지으나 죽을 끄리나 내암새가 나서 맛이라고는 하나도업섯다 죽에 무근채소라도 너허야하겟는데 그것이업서서 풀을 뜨더다가 너허서 끄려먹엇다 그러하기를 이십여일동안 계속하엿는데 대포탄은 비발가치날러와서 참으로 악전고투하엿다 모두 담배가떠러저서 말은풀을『지리가미』에 마라서 피엿다 하도배가 고파서 나중에는 내가 통역(조선사람)을 시켜서 개를 잡아서 중대장과소대장이나누어 먹엇다 도야지나닭은 한머리도 구경할수 업섯다 개고기도 모두 맛나게 먹엇는데 사오월뒤에 그것이 개고기엿다고 일섯을 말함측 모두 구역을하엿다 채소는 천미물가령안가면 히 잇섯지마는 그곳이 적군파의중간이엇기때문에 가질러갈수 업섯다 오이와 가지와 무우가튼것은 바로가까운 곳에 잇는것을 라보고서도 캐어올수업섯다 어떠사람들은 고양이를잡아서 구어먹은이도 잇섯다 먹을것이업서서 고생도 되엇지마는 탄환이떠러저서 밤에는 자지안코 적군의 탄환을 빼아서다가 차음을하엿다 산우에잇슬때에는 물이업서서 삼십리나 걸어가서물을기러왓다 산서성은 어디든지 물이나빠서 일변반가량 잇는동안 얼굴바치 번허젓다 석영이 업서서도 무척 곤난하엿다 이와가치 지나인은 더욱 심하엿다 졸어 죽을번한 경우를 당코서도 마치내는 적군을 물리치고 승전하엿다(제절산시범에 잡혀원 승리의 이야기다)

濠洲미숀會의醵意로 東萊日新再生曙光 救命運動에感激·賣渡承諾

【東萊支社發】 폐교의비운에빠진 동래일신녀학교(東萊日新女學校)를 구하자고 일어난 백여명지방 유지로 조직된 재단조성기성회 의학교구명운동이 효과를 나타내 어재생의희망이 농후하다는 기쁜소식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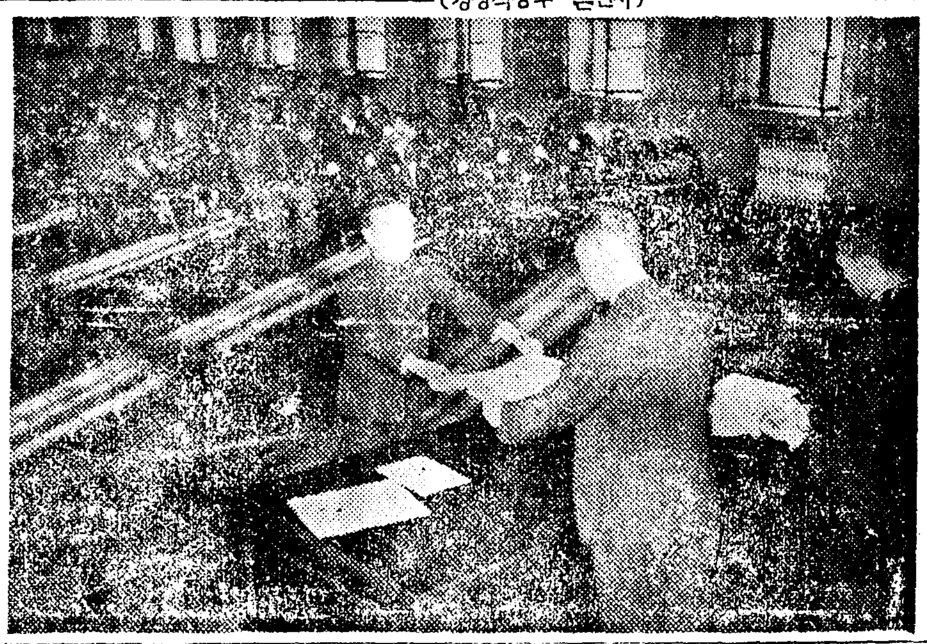
학부형회에서는 지난이십팔일 학교에 학부형회를열고 학교경영단체인 호주밋숀회총무『피안』드로』여사에게 모교가 존속하도록 힘을 빌려달라고 간청하고 삼십일에는 기성회관계자수명이 다시 여사를 만나 교사 설비일체를 오만원이면 살힘이 잇스니 그리알선하여달라고 요청한데대하여 여사는 그들의성의에 감격하여 밋숀회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재결의를 요청한 결과 지난번임시총회의 결의를 번복하고 절대다수가 매도에찬성하여왓스므로 곳 호주본부에 매도에관하여 승락을전청(電請)하엿던바 유일밤에 승락회전이 왓다

이때서 기성회에서는 곳오십만원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경영하기에 일치매진하기로 되엿다

學生美展授賞式 昨夕本社大講堂에서擧行

본사주최 제삼회 학생미술전람회는 지난달이십칠일에 끗낫거니와 특선(特選)우선(優選)두부문에 태알을바든 열다섯명에대한 시상식(施賞式)은 칠일오후네시, 본사대강당에서 기꺼웁게 거행되엇다 본사 사장대리로 이주필(李主筆)로부터 축하와 압날을 격려하는 말과함께 각기소정의 상품을 주엇는데 그들의 입선된종목과 제목이름은 다음과갓다(사진은 수상식)

特選
中等部繪畫科
廊下 李景熏
卓上風景 趙世援
江夜 金命求
中等部刺繡科
鳥 申花蓮
初等部自由畫科
우리아버지 李成默
優選
中等部繪畫科
봄의집동 邦蔚天
靜物 趙命植
野外風景 李貞錫
中等部編物科
곳순 金鋼蘭
初等部自由畫科
風景 金允鎬
秋收 文甲用
아버지 李麟永
初等部手工科
곳순 梁福順


(경양식상수 은진사)

今日이立冬

오늘 팔일(음력구월스무일헷)날은 입동(立冬), 이제는 진가을 도넘어서 이시절의 자랑거리인단풍이 한가닥의 서풍끝에도 우수수떨어지고 갈수의 커ー다란 입이 하나 둘 아스팔트우에굴음도 쏠쏠하기그지업다 각가정에서는 김장거리 때얼나무겨정이 한창이고 이에따라 거리의 빈터마다 배추와무우가 덤이덤이 쌓혀잇다 최호소에오늘의 날씨를들으니 약간기온은 내릴것이나 평년과다름업겟다하니 김장거리 사드리기에 조바심하기는아직일으다 하겟고 때얼나무만은적취사드림이 호편하다하겟다

自動車轢兒

유일오후한시 부내신당정(新堂町) 이십이번지 자동차운전수 이태완(李泰完)(二八)은 통의정(通義町) 일백사십칠번지 아페서 경기구천사십일호자동차에 손님을 태우고 떠나려할지음 필운정(弼雲町)이백구십삼번지 정창섭(鄭昶燮)의 넷째딸 옥규(玉圭)(三)가 차아페 기어온것과 충돌하여 머리와 얼굴에 치료팔일간을 요하는 상처를 입혓다

쌀을아끼자!

今日은 節米實行日
精神作興週間 第2日

"榮譽의皇軍으로서 責任의重함을알라" 畑陸相、志願兵에게激勵訓示

이번동경에 도착한 지원병출연생에게 전군상(畑陸相)은 다음과가튼 훈시를주엇다

육군특별지원병령에따라 조선총독부 육군지원자 훈련소제도가 창립된 후 벌써 일년반에 졸업생을 내기두번, 제군의 선배는 망회잇는 황군의 일원으로서 혁혁한무훈을 세우고 불멸의공적을 성전사(聖戰史)에 남겨 내선일체의실을 발휘하여 미증유의 국난에 당하고잇다 제군도 머지안허 今線을 짐머저야한다 생각건대 복잡한 국제정세에 처하여 흥아의성업을 완성하는데 잇서 군(軍)의책임은 더욱 무겁고 큰것이잇다 국가와국군의 제군에대한 기대는크다 제군은 천황폐하친솔의 군에참렬하는 영예를생각하고 더욱 그책임이중한것을 자각하여 한층더 의용봉공의성실을 다하여써 성은에봉답하기를 기하기바란다

漢南町火災

칠일오후 여덟시삼십오분에 부내 한남정(漢南町)칠백칠십이번지 김영백(金英伯)씨의 집에서 불이나서 초가다섯간한채를 태우고 오후아홉시오분에 불을잡앗다 손해는약이백원가량이며원인은굴뚝이단속을잘못한듯하다

十月中經濟事犯만 京畿道、千件을突破

지난이십칠일부터 조선에도실시된물가가격통제령에 판한국가총동원법실시를앞두고 경기도경제경찰과에서는 판내각서에 통제법령위반자의 적발을 통달하여 각서의 시월중 검거건수가요즘 동경제과에 들어왓는데 이번의 집계를보면 조선물품판매가격취체규측위반밋 폭리취체령위반으로검거된것이 약천건이나되어 지금 서류를정리중인데 내용에따라서는 계고처분을바들것도 상당히잇슬모양이다

鐵道職員表彰式

철도국에서는 오는십삼일 오전열시부터 용산철도국직원집회소에서 제십회 원거표창식을 거행하고 이십오년이상계속근무자가운데서 성적과 조행이모두 출신 뛰어난사람에 대하여 남종독이산천(山田)철도국장으로부터 각기 표창장(表彰狀)과 효적장(効績章)을 주기로되엿다 이번에 이영예스러운 표창을 바들사람은 대전철도사무소장기사단하정일(丹下正一)씨이하 이백팔명이나된다 그가운데서 부참사 한명과 기사두명과 서기사십일명과 기수(技手)이십삼명과 철도수사십오명과 고원구십륙명이다 이가운데 조선사람은 칠십오명이다

喪酒먹고殺人! 加害者、晋州署逮捕

【晋州支局發】유일오후여섯시반진주군수성면화개리(晋州郡花開里)에서 농사를하는 저한해(諸漢海)(三五)가 친구의 상례에참렬하엿다가 취해서돌아가는길에개양(開陽)역전에서 동행자가운데의 차억만(車億萬)(三四)과 사소한말다툼이생겨 언쟁을하던끄테 저한해가 조그마한 몸을들어차의머리를 때리자 꼬꾸러저서동여서이십분에 드디어절명하엿다 이급보를바든진주서에서는 강사법주임이 호의를 동반하고현장에 임검하여 곳 가해자와연루자 세사람을 진주서로 인치하고 방금엄중히 취조중이다

白衣勇士慰安 演劇會開催

시국대응전조선사상보국련맹경성지부(時局對應全朝鮮思想報國聯盟京城支部)에서는 경성음악학원(京城音樂學院)과 극단고협(高協)의 공동주최로 백의용사위문음악연극회를 팔일오후한시부터 세시까지 용산육군병원(陸軍病院)애국관에서 연기로되엇는데 음악과 연극등자미잇는종목을 만히 상연하여 백의의용사를 즐겁게하리라한다

賀川豊彦氏 十一日入京講演

하천풍언(賀川豊彦)씨는 이번 조선기독교련합회의 초빙을바다 경성을 비롯하여 각처에서 강연을하게되엇는데 경성에는 십일일오후네시십팔분착차로 인경하여 십이일과 십삼일양일간 다음과가치 강연을한후 십삼일밤열한시오분발차로 신의주에 향하게 되엿다

◇十二日(日)午後七時 貞洞禮拜堂『神과永遠에의思慕』
◇十三日(月)午後四時半 府民館『學生と宗教』『機械文明과宗教生活』
◇同午後七時半 府民館『宇宙觀과新人生觀』

北安省開拓民先遣隊活動

辻拓務課長視察歸任談

총독부 척무과장 신게오(辻桂五)씨는 삼주간에걸처 만주국파의협의와 이민지(移民地)의 시찰을 마치고유일오후에 귀임하여 아래와가치말한다

이번가을에 처음으로 조선개척민이 들어가잇는 북만주북안성(北安省)을 시찰하엿다 망망한 옥야처리에 파견된 개척민의백호가 발금진을세우며 질서를 닥느다고 령하실천도라는 치운가운데에서도 원기가 왕성하게 활동하고잇섯다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명년봄에본대(本隊)이천사백호의 이주도 충분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조선사람들의 개척지도 상당이 흥룡한데 총독부로서도 고려치안허서는 안될것은 개척민의 선정으로 개척민을 모집할때에 더더노코 조사고만 선정하여 현지의사정과 정신적지도를 소홀히하는것은 이주한후에도 여러가지 조치못한 평판을낫케 되는것이다 이점에대하여 총독부에서는 명년도에 이민협회(移民協會)를 설립하고 남조선질도에 훈련소를두고 개척민의 소질향상에 노력하려고 생각하고잇다 선척과만척의합병은 지난십일일에 임시만주개척민심의회에서 결정되엿스므로 오는 이십월경 신경에서 두회사의 간두들이 모이어 합병준비위원회를 열고 통합에관한 자세한 내용을 협의하기로되엿다 여내로 대체의 준비를 마치고 만주국측에서는 늦저도 사월중에는 실현시킬 의향인것갓다 두회사가 합병된후에는 현재선척에서 경영하는 세포이민훈련소는 국영으로옴기고 서북조선으로가는 이민취급에 대하여서는 새로히 계속기관을 고려치안흐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한다

英國行書信 一般注意를喚起

영국(英國)전쟁의 기간중은 전시금제품 또는 불온문서등의취체를 위하여 영국에기항(寄港)하는 선박에실은 우편물에대해서 검열을 실시한다는 공전이 영국주차제국대사관으로부터 외무성에 도착되엇스므로 칠일체신국에서는 특히 이뜻을발표하여 일반의 주의를 환기하엿다

따라서 금후일반은 영국향구를거처서 보내게될 우편물에대해서는 항상주의하여 전시금제품이불온 남이뜨던를 경우에 제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일체의 통신을 삼가하기를 당국에서도 바라고잇다 단 영국과 전쟁하지안는 다른나라라면 그나라 중앙관청이나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한해서만은 보통우편과는 섭질을달리하여 영국관헌의 검열을밧지안케되는 것이니 이런종류의 우편물은 관계업다

○ 살안파는사람은 엄중처계하리라고、
○ 뒷골목 사정도 모르고 패니떠드는십 아나?
○ 남총독 고령자백명을 초대하여 경로회、
○ 수즉다욕(壽則多辱)이라……

龍山團師의 精神作興行事

칠일부터 실시하는『국민정신작흥주간』에 용산사단사령부에서는 다음과가튼순서로실시한다 ▲칠일 구일은 쌀절약하는날 ▲팔일은 국민정신작흥일(總出動日) ▲십일일은 충혼연습일 ▲십이일은 건강증진일(健康增進日) ▲십삼일은 수양반성일(修養反省日)이다

▲十一月八日(水曜日)陰九月二十七日 ▲立冬 ▲干支 己酉 ▲日出 午前七時四分 ▲日南中 零時十七分 ▲日入 午後五時三十分 ▲月出 午前三時二十一分 ▲月入 午後三時二十六分 ▲滿潮 午前一時五十分 午後二時三十分 ▲乾潮 十時二十六分

今日天氣…晴曇不定

明治神宮大會觀戰記 ①

高鳳梧

天覽의光榮에感激 마라손制覇의偉勳

奇緣·一着에서六着까지!

體育文化史上에 빛나는 第十回明治神宮國民體育大會는 처음으로 厚生省이 廿五萬圓의 豫算으로 主催하여 全國으로부터 四萬에達하는 未曾有의參加者가잇서 六日間에亘한 前例업는 大爭霸戰의幕은 지난 三日에開演 도盛況裡에 다치엇다 스포-츠朝鮮의榮譽를 짊머지고 이大會에出場하엿던 朝鮮代表男女三百四十二名中에는 天覽의光榮에 浴함은 勿論이요 開會式에 秩父總裁宮殿下께서 優渥한 令旨를 내리신것은 出場選手一同의 無上한 感激으로 永遠히 記念할바이다 이제 이 大會에서 朝鮮選手들의 奮鬪하여 남긴 足跡을 더듬어 그 成果를 回想하여써 明年大會에對한 準備工作에 一助를 삼으려한다

陸上競技

朝鮮代表二十六名이參加하여 期待한바컷스나 마라손을 除外한 各種目이 不振狀態에 빠저잇섯는데 入賞者도 奇緣이라할까 마라손一着、二着、投槍에白 南米에 金恩培君三位、千五百米에 崔禧千君四着、百米에 金裕澤君 五着 女子走高跳에 小林孃 六位等一着으로부터 六着까지에 한名式 이入賞되엇슴을 全般的으로는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못하엿다 이는平素에 適當한 技術的指導者가 업는것과 訓練이 不足한까닭이라하겟다 더욱이 女子部는 八種目에 優勝한 愛知縣代表를 비롯하여 關東代表等에 比較하면 體格으로나 技術에 잇서서 天壤之差가잇스니 朝鮮은 女子體育에對한 根本問題를 再檢討하지 안흐면아니될것을 늣겻다

이번 陸上競技에는 參加者가 男女二千餘名을 突破하여 體育會第一高等學校運動場을 蹂躙하다시피 모도 百餘名의 男女選手가 떠러지버린 結果 情報하던 外苑競技場에는 하번도 『스파이크』를 印치지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그 날도 健鬪한 選手도 적지안헛스며 參加者도 어느部門이나 그 떠하거니와 東京에 到着하여서도 練習競技場의 斡旋조차업고 푸로그람가튼것도 容易하게 손에 들지못하는 不便을 選手諸君은 모두 느꼇다(寫眞)

陸上競技

李禧晃、康仁錫健鬪로 第一戰에無勝負

昨夜의日米拳鬪對抗

【東京電話】全日本拳鬪聯盟의 主催와 期待를 이끄른가운데열린 日米拳鬪對抗戰은 七日午後六時부터 小石川後樂園스타디움에서 三萬觀衆이 雲集한가운데 擧行되엇다 米國太平洋沿岸의强豪를 선발한 米國軍과 日本軍과의 第一戰에 必勝을 期하고잇다면日本軍에는 朝鮮出身의 네名이나되어 强敵米國軍을 노리고잇서 兩軍은 熱戰끄테 二對二無勝負로 마치엇다 이리하여 米國軍一行은 來十八日에 京城運動場에서 全朝鮮軍과 決戰케되엇다(寫眞은 米國拳鬪軍)

◇오픈·게임

【플라이級】
○小浦(立敎)判定 高見(專大)×
△永松(明大)無勝 水谷(日大)△

【밴탐級】
×水田(早大)判定 太田(明大)○

【라이트級】
○鮮于武(YN)KO洪龜浚(BG)
▲第一라운드一分四十五秒

◇日米對抗戰

【빤탐級】
×빌·세러스(米國)判定 李禧晃(專大)○

【페더一級】
○크레드·레쓰(米國)判定 金丙玉(日大)×

【라이트級】
×덩·레리ー(米國)KO 秦(明大)○
▲第二라운드一分三十秒

△할스·카원(米國)無勝負 康仁錫(立敎)△

【웰터一級】
○젬스·킹케드(米國)判定 李禹煥(早大)×

以上과가티 李禧晃君이 빌세러스君을 이겻고 金丙玉君은 크레드·레쓰君에게 判定으로 惜敗하엿스며 할스·카원君과康仁錫君은 接戰끄테無勝負로 마치엇다 그리고 올림픽選手李禹煥君은 젬스·킹케이드君에게 判定으로 惜敗하여 二對二同點이되엇다

大豫籠球連勝

大豫對法專의定期籠球戰第二日은 大豫先勝의뒤를이어 七日午後四時半부터 大豫體育館코-트에서 崔楠龍 尹相榮兩氏審判下에開始한바 結局三十八對二十三으로 大豫가連勝하엿다

大豫 38 (18 20 / 15 8) 23 法專

運動集會·人事

▲吳東範君(明治神宮마라손優勝者)凱旋人事次 本社來訪

廣告

映畫俳優志願者手引書

一冊二十錢 送料金二錢

本書는日活、松竹、東寶、新興、東京發聲、大都等各撮影所及俳優學校의俳優志願하는方法을詳述하고如何히하면俳優로서成功할수잇슬까上京申込의注意等모든方法을詳述한便利한案內書라 切手代用은一割增

東京世田ケ谷區世田ケ谷四丁目七百七 東京映畫俳優協會出版部
振替東京三七六八〇番

無精力者에大警告!

二姓間의圓滿한和合은 百福之源임을勿忘하라

먹는그瞬時로忽然靑春化하는 호르몬性精素 最强力回春劑 キング·オブ·キングス

生理學界의權威 日本醫學博士 羽太銳治氏發見

靑年들이여人生의幸福을다시찻게하라

發明者 羽太先生談

現今의世態를 一瞥하면 참으로 憂慮할事實이非一非再이나 그中에서도 더욱이痛嘆하야마지안는것은 將來에有爲한人物이 靑年들이 劣情을挑發하는强烈한刺戟에眩惑하야 自己의責任과體力을 돌보지안코 享樂的氣分으로 紅燈綠酒와性의奔流에 몸을던저 無攝生의生活을하며 性力濫費로因한 性機能의障害를이르키어 無限한苦悶을하는同時에生存競爭의激甚한現社會에서 早老無力해저敗殘의一路로轉落케되며 神聖한夫婦愛를일코 人生의幸福과緣을끈케됨이니 뜻잇는者그엇지默視해버릴일이리요

余는 일죽이 醫師의立場으로서의 이에對한研究에苦心하든中 性器能의障害된諸症勢를 强健狀態로回復식혀서써 早老無力을征服하는데에는『性호르몬』原素의應用으로 生殖腺內分泌機能을 旺盛하는것이 가장適切하며 또는 生理醫學的으로도 第一速한效果가잇슴을發見한後에 嚴密한藥理와 臨床實驗을밟버發明創製한것이 科學的回春劑『キングス』인바 早老된靑年은勿論이요 老衰된老年일찌라도 服用하는데에는 精力과陽氣가湧出해지며 性器能系統을振起復活해지게하야 줄것을斷言하는바이다

女子가먹어도相關업겟습니가

(京城) 金在永

除煩 전번에 注文하온 貴堂 精力劑『キングス』十圓分은至今 服用中이온바 계속하여 效果에는 놀래임을 마지 안엇습니다 또는 藥이오는 氣分이 무어라고 말할수업시 이상하게도 마음이 흥분되여 해동안을 적적히지내든生活이至今은 아주 滋味잇게 잘지내게 되엇습니다 제가『キングス』를 먹은後부터 元氣가 나날이달너지는것을보고 제안해도 藥을 좀먹어보겟다고 하옵는데 女子가먹어도 상관업스며 男子와가튼 效果가잇겟습니가 萬若그러타면 둘이다먹을작정이오니 通知해주시는同時에 大瓶十圓分二瓶을 代金引換으로 急送해주십시요 이곳藥房에는 品切이되어 업다합니다 送料三十錢은 郵便切手로 先送하오니 바로주시기 바랍니다 夫婦가 한집에잇서면서도 남과가치 쌀쌀히지내든것이 지금은 完全히解決되어 이다기뻐합니다

먹으면곳알게된다

本回春精劑『キングス』는 精力과陽氣가 發揚되는 根源이며 官能感受性이 第一銳敏한睾丸內의 生殖腺에 直接快强刺戟을주어서『性호르몬』의 增强作用을 行함으로 諸性器能의全面的 徹底强化가 期待되는劃期的 新發見의 生殖腺復活素이다 그럼으로 局部的이나 또는一時的效果에만 끄치는것과는 根本的으로 相違할뿐만아니라 靑年期 中年期의 性的欠陷은勿論이요 老年期의衰退된 生理機能일찌라도 完全히更生强化케 되어 그의 活動能力을 促進遂行케한다 또는 一回에五粒服用으로 科學的藥能이 半時間後면나타나게한 快速한 效果가잇서그누구나 驚嘆케하는바이다 그러하오니 早漏、陰萎、遺精、夢精、衰弱、疲勞、陽氣不足、精力減退에、한번試驗해보십시오 먹으면 곳알게되는 藥效가내몸을期待以上으로질겁게해줄것을 斷言합니다

여러말한것이참으로罪悚하다

(大邱) 崔寅杰

그동안 貴堂의諸位는 安寧하십니가 삼가問候합니다 貴堂의『キングス』야말로 理想的補陽回春劑라고 斷然믿습니다 生은元來부터 病質이 弱한편인데다가 早漏症까지잇서서 悲觀하엿든바 어떠케해서라도 곳처보랴고 조타는약은 다써보앗습니다만은 效果를못보앗고 점점더해질뿐이옵더니 友人의紹介로『キングス』를 注文하야먹고 그나마도 보내주시엇든五圓分을 完快되어 不足업든 家庭生活의幸福을 차게되엿사오니 질겁기가 한이업습니다 果然 이것이 참말로 效果가잇는것이 엇지 한낫 友人들에게 自然宣傳을해드리겟습니다 金五圓을 小爲替로 同封先送하오니 中瓶을 또 보내주시옵소서

늙은몸이이러케될줄이야

(淸津) 林鐵守

老齡으로해에노衰한 거지반다 해왓든지라 이제는 하나업소이다마는 하로는 東京서파는 回春劑『キングス』가 빨니세잘듣는다며 神效하다기로 먹으면 어떠케되느냐고 무러보앗드니 먹어보면 알것이라기에 어디한번 시험해보자하고 五圓分中瓶을 注文했든바이외다 그리하여 먹어보앗더니 老衰로因한 陰萎증이 대번에回復되는데는 놀래엿습니다 이정신이상쾌해지고 元氣가 처음같이 되어 모든것을 단념하였든 몸이 이러케될줄이야 천만뜻밧기외다 早速한藥效에 감복하여 마지안사외다 금번도 五圓分中瓶을先金注文하오니 至急發送하시는대로 大至急付送하시오

注文은하로라도빨리

早老、老衰를 征服하고 紅顔童心으로 靑春力의 更生을 願하시는분은 조금도주저마시고 朝鮮全道有名藥房에서 販賣하고잇사오니 買入服用해주시되 萬若 品切로因하여 업는때에는 左記 總代理店本舖로 振替나、或은小爲替 또는代金引換으로直接 注文해주시면 急送해드립니다

藥價는 小瓶(二〇粒入)二圓 中瓶(六〇粒入)五圓 大瓶(一〇〇粒入)十圓 送料는 十七錢이오나 그中에서 十五錢만을 貴方先送해주십시요

東京市芝區琴平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泰東堂
(振替東京七七一一番)

中部版

仁川穀物賣買會社 九日에 創立總會

【仁川】 공칭인천에서 사십여년 이나오면의사를가지고 있던인천 곡물시장주식회사(仁川穀物市場株式會社)는 인천기미시장 폐지에따라그기구를 개혁하여 인천미곡사재주식회의후신으로 인천미곡매매주식회사(仁川米穀賣買株式會社)를창립하려고 전기조합원을부터 주주모집중이엇던바 요즈음그준비가갓나고 오는 구일오후두시부터 부내미생정(彌生町)공회당(公會堂)에서 회사창립총회를열게되엿다한다

敦岩、永登浦地區에 待望의上水道敷設

但資材關係로于先敦岩地區부터着工키로 七日總督府의認可手續完了

경성부에서는 돈암정(敦岩町)영등포(永登浦)두지역정리지구에 수도를 노키로되어 돈암지구에는 이십만원 영등포지구에는 추가예산을 계상한후 수도시설에따르는 설계변경신청을 총독부에제출중 금월칠일부로인가되엇다 두지구의 수도계획은 총공비오십만원으로 돈암지구에는 일만일천사백오십미돌 영등포지구에는 일만삼천육백미돌의 수도를 드려노려는것인데 예산도 통과되고 기재도순조로히 된데다가 이번 설계변경신청마저 인가가 되엇스므로 즉시공사에 착수할터이다 그러나 철재기근으로 철관의이탈 우대용철관을 쓰기로하고서도 우금것소요철재의 상할로 손에너치못하고잇서서 부수도과에서는 부득이 이것을가지고 우선돈암지구에만 착공하기로하고 영등포지구내의 수도공사는 자재가드러오는형편을 보아가지고 일을시작할예정이다

京南一帶는除外

住民들의不平高調

【京南】 동부방면 돈암정(敦岩町) 영등포(永登浦)지구에 이십만원과 수도부설공사는 철관대용품"콩크리트"관을 사용하여 불원착하기로결정되어잇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수원지를 등에지고 한강을안고잇는 경남일대에만은 오직 쏙빠저잇서 어느때에나 부의혜택을 맛볼가하여 불평이노픈데 그중서빙고정(西氷庫町)동빙고정(東氷庫町)주성정(鑄城町)일대는 현재수도판이 오십메돌이나 갓가운곳에 부설되어잇건만 연장해주지안코잇서 팔천여명주민이 항상불안을 품고잇스며 또한 한남정(漢南町)과보광정(普光町)도 현재부근에 모공사장까지는 벌써부설하여노코 오즉 정내에는 부설치안코잇서 이역시 불평이자자하다 이리하여 방금경남일대는 수도판이 눈아페노혀잇서도 화중지병이요 수원지를매일처다보아도 쓸때가업서 날마다며개아니되는 우물가에는 남녀노소가불켜서서 물싸홈이일어나는상태인데 동한기의곤난이 더욱심할것으로예상되며 급속히수도시설을 갈망하고잇다한다

金浦對江華 圍碁大會盛況

【江華】 김포대강화의"바둑"대회는 지난사일 강화유흥사히시(橫山喜市)씨집에서 개최하여 개회전두곳선수의 소개가잇섯고 간사장 금정(琴淵)씨의 인사가잇슨후 바로 개전하엿던바 두곳의실력은 막상막하로 싸움은 문자그대로 백열화하여 동、오후령시까지 끄틀 막게된바 삼십대 이십오점으로 강화군이 우승하고 곳(상품)회는를어가 약간의 주효로 피로를풀고 강화군의 고천히일랑(古川留一郎)씨의 감상과 김포군의 소천도태랑(小川道太郎)씨의 감상담이 잇섯다 그러고 당일입상된 개인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等五勝 田中國(江華) ▲二等四勝 棚瀨(江華) ▲三等四勝 李換(金浦) ▲四等四勝 小川道太郎(金浦) ▲五等三勝

長湍農産物品評會

東小學校主催로

【長湍】 장단동소학교주최인 농산물품평회는 명치절을 기하여 지난삼일 오전열시부터 그학교 강당에서 내빈저군수를 비롯하여 다수참석하여 성대히열렷는데 출품농산물의종류는 주부산물하하여 사십여종으로 출품점수는 그학교것이 일천사백십오점 간이학교가 이십칠점 지도생 청년단일밥이 칠점 합계일천사백사십구점에달하고 입상은 일백십사점으로 출품은 전년도품평회에비하여 모두가 향상됨이 낫타나보이는데 이것은 평소에열심으로 아동지도에 당한학교당국자의고심을 여실히보여주고잇다

秋風에달며 出奔한少婦

【仁川】 가을바람에 달뜬소부들의출분＝충남논산군성동면원남리(論山郡院南里)에 현주를둔 강갑례(姜甲禮)(一七)는 지난시월십팔일밤여덟시에 무단출가하여 이십일이 넘도록 돌아오지안흐므로 그집주인 최홍진(崔洪鎭)은 사방으로 수색하엿스나 행방을 전연알수업다고 인천서에 수사원을 제출하엿다 동서에서도그 여자의 나이가 어린판게로 어떠한자의 유혹을 밧지나안혓나하여 사방으로 조사중이라한다

婦人幹部講習

長湍永水庵에서

【長湍】 생활개선 근로정신향상에 필요한상식을 주어서 부락의부인간부로서의 자격을 구비케하고저 장단군에서는 지난오일오란야동지부터 장단 영수암(永水庵)에서 부인간부강습회를 개최하엿는데 강습과목과강사는 다음과갓다

一、國民精神總動員에關하야 朴郡屬 二、[illegible] 三、[illegible] 四、主婦의任務와生活改善

호박아닌이배!

重量이五百十二匁에周圍가一尺六寸 羅州名産에日本一의레델

【全南支社發】 전남 나주(羅州)지방은 토질과기후가 과수재배에적당하여 일년생산 팔십만관(貫)에 금액도 오십만원을돌파하고잇서 그판로도넓거니와 유입에는 전남상공장려관에 나주재등과원(羅州齋藤果園)의 산물이라하여 보기에도 탐나는호박만한 배오륙개를 출품하여 비매품으로『일품』에답거 보관하게되엇다

배의중량은 오백십이몸메로 보통시장에서보는 큰배가 일백몸메내외라하며 그 주위는 일척유촌오분이고 고(高)가 오촌오분인바 배이름은 본래금촌추(今村秋)라는것이엇스나 그종자가 나주에와서 맛도달라지고 특히 크게되어 동경천필옥(東京千疋屋)의 주인이 아리랑으로 명명한것이라한다 그리고 도오과리원점에 장곡천기수(長谷川技手)는 다음과가치 말한다

그방면에 오래판계를하고잇는관계상 여러가지배를만히보앗스나 복강현산조지리라는배라거나 고지현산금촌이라는배는 저러케큰 도만히보앗는데 저러케큰 배는처음이니 일본제일이아닐까합니다운운

(사진은문제의큰배)

仁川府明年度豫算 五百五十萬圓不下?

日下各課에서銳意成案中

【仁川】 십일만부민을 포옹하고 공업도시로써 면목이바꾸어지려는 항도인천의 내년도살림사리에는 얼마나예산이드는가? 인천부명년도예산안의기초는 각과에서 작성중인데 느저도금월말로써 마감을할터인데 추가예산을합하면 금년도의 예산액은약 삼백팔십만원에 달하는데 아무리 긴축한다고하여도 명년도예산은 총액오백오십만원은 되어야할모양으로 아프로는 인천부의 큰혁신인 산업과의 독립을보게되면 이에대한 예산이늘것이며 따라서 공장지구정비비를가산하면 상당한금액이될것으로 보인다

米需給調整懇談

金浦郡內關係者들萬全策樹立

【金浦】 김포군에서는 군내의미가안정과 수급원활을 도모하고자 지난사일오후두시부터 군청회의실에서 면내、정미업자와 미곡취급업자등 백여명을 초청하여가지고 미곡수급조정에대한 간담회가 열리엇다 그중 요한안으로는 공정미가의 실시철저와 미곡국외반출에대한반출、칠분도미실시、취체방법에대한 설명등이잇섯는데 금후부터는 소위 중개상인의악폐를 업새기위하여 경찰서장의중개인(仲買人)증명서가업는사람은 미의중개취인을못하게하엿고 미곡의군외반출을 통제하기로하여 미곡수급조정책에 만전을기하기로되엇다한다

金浦郡白米小賣標準價格

白米二等品 石當三七圓六一錢

七分搗白米 石當三七圓二一錢

正租取引標準價格(斤當)

一、銀坊主 一等一〇錢一四毛、二等九錢九毛、三等九錢八四毛、四等九錢六九毛、五等九錢五四毛

一、多摩錦 一等一〇錢二〇毛、二等一〇錢五毛、三等九錢九〇毛、四等九錢七五毛、五等九錢六〇毛

一、豊玉 一等一〇錢二九毛、二等一〇錢一四毛、三等九錢九九毛、四等九錢八四毛、五等九錢六九毛

一、穀良都 一等一〇錢五一毛、二等一〇錢三六毛、三等一〇錢二一毛、四等一〇錢六毛、五等九錢九一毛

一、陸羽 一等一〇錢三四毛、二等一〇錢一九毛、三等一〇錢四毛、四等九錢八九毛、五等九錢七四毛

梧城狀稧를創立

梧城平野旱害克服策

【平澤】 평택군내에서 제일곡창을 이루고 만히생산되는 오성(梧城)평야는 금번한재로 인하여 적지안은타격을 밧게되어 몽리농민의 곤난이 심하므로 그대책으로 평택산업조합 각지주들과 협력하여 지난사일오전열시에 평택공립회관에모히여 계를조직하엿다 자본금삼만원중 반액은 도보조를 엇기로 매고 반액은 각지주들이 출자키로하엿다는데 이수리보가 완성되면 오성평야 사오천정보에 큰혜택이 될것이며 당일선정된 역원은 다음과갓다

契長 鄭□□ 評議員 李三鎬外三人 幹事 兪好□外二人

水原初有의 懸賞雄辯大會

本社支局後援으로

【水原】 전선사상보국연맹수원분회(全鮮思想報國聯盟水原分會)와 조선방공협회수원지부(朝鮮防共協會水原支部)주최와 본사수원지국의 후원하에 정신작흥주간인 제오일인 십일일 오후칠시에 수원읍 공회당(公會堂)에서 수원초유의 현상웅변대회(懸賞雄辯大會)를 개최하는바 참가자격은 일반남녀로하엿다 뜻잇는일반청소년은 이런기회를 일치말지며 웅변에대한제목은 방공파방첩(防共防諜)에관하여 자유로선택할수잇는바 웅변을 토하고자하는분은 십일일금요(金)정오까지 대강의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될수잇는것이다 상세한규정은별란

賭博團六名捕盡

【春川】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도박이 성행하므로 춘천경찰서에서는 예방선을펼치고 경계중 처음 그물에걸린 도박단이잇다 이들은 이발소、약회직공들로 여섯명이 한번에일원서부터 오원까지걸고『모이조』란도박을 한것인데 초범이되어 특히장래를 생각하고 준절히타이르고 약간 과료처결처분을 하엿다한다

漢銀江華支店開店日 預金額五十萬圓

【江華】 오래동안의 숙망을일운 강화한성은행지점설치는 지난사일을 기하여 개점의 첫문을 열게되자 인이 터어지도록 몰려들어오는 예금자들은 과연은 행당국자들을 놀내이게하여 지배인은 점심을 먹을여가가업을지경이엇스며 동행본점으로부터 당일 야전(野田)두취와 장우식(張友植)취체역이 현장에와서 이가튼 광경을 보앗는바 과연당일의예금자는 모다 사백칠(四〇七)구로 예상이상의 조흔성적으로 사십팔만원을돌파 초과시키어 부모강화의면목을 의연히 빗내고 동행의 압날을축복하여 은행당국자들의 기쁨은 말할배아니며 강화의 상게인도 기뻐하여 마지안는다고한다

菊花展覽會

【伊川】 강원도이천군내 조선국화동호회이천지부(朝鮮菊花同好會伊川支部)에서는 예년에의하여 국화전람회를 이천공회당내에서 개최한바 출품점수가 오십구점으로 심사의결과 다음과가치입상하엿다

指定花陶朱公賞

特選一席 神宮杯及郡守賞 村上哲

特選二席 神宮杯 福田平三

◇多輪之部

特選一席 神宮杯及道會議員賞 金仁寬

特選二席 神宮杯 村上哲

特選三席 同 崔東植

特選四席 同 三本松寅三助

◇懸崖之部

特選一席 神宮杯及支部長賞 李相勳

特選二席 朴永華

特選三席 松井穆

◇盆栽之部

特選一席 神宮杯及支部長賞 朴永華

特選二席 神宮杯 松井穆

(特選之外省略)

旱災民에同情熱

開城學窓에서敎會에서도爆發

【開城】 엄동설한이 절박해오매 따라 충남한해재민들 생각하는 동정심은 학창과교회의 어린이들의 가슴에서 용솟음쳐나오게되엇다 즉지난오일오후 부내고려정(高麗町)송도내교회에 주일학교예배출석자 삼십명의소년소녀가 모인장소에서는 어떤소년이 한해동정금을 걱정한자는날이나사 즉석에서주머니를털어 일원팔십전을 모아가지고 본보개성지국에 기탁하엿다 다음송도상소학교(松都常小學校)이원 생도일동은 가튼날 동전십일전의 동정금을모아 본보개성지국에 기탁하엿는데 일반의 칭송이 놉다

酒類密造防止의 "포스터"展覽會

【公州】 충남공주세무서(公州稅務署)에서 현하시국에비치어 납세사상을고취하는 의미로 주류밀조방지(酒類密造防止)의『포스터』전람회를 오는십、일일양일간 당지본정소학교강당에서 개최한다고한다

優良面書記表彰

【潭陽】 명치가절을복하여 전라남도에서는 도내각군의 이백사십팔면 면서기중에 통계사무로 가장우량한면서기 두명을선발하여 표창하게된바 그중담양군금성면(潭陽郡金城面)서기 김기문(金基文)씨는 칠년동안을 하로가치정근하엿스며 통계사무에우수한성적을 내엿스므로 지난삼일오전열한시쯤 담양군청회의실에서 관민유지열석미테 동군군수이용수(李鏞洙)씨사회로 도지사의표창전달식을거행하엿다한다

地方人事

▲朴齊昇氏(江華郡守) □井町二一의二自宅에서 還外歡

社告

今般本社에서如左히支局을設置又는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咸悅支局 位置 湖南線咸悅驛前 變更 昭和十四年十月二十八日

支局長 裵憲 右新任

支局長 南伯熙 右解任

石峴分局 位置 京仁線石峴驛前 設置 昭和十四年十月三十一日

分局長 崔仁鎬 右新任

□州支局白

忠南緊急問題檢討 ❶

農工併進이急先務

西北朝鮮만의偏重은斷然排擊할일

일지사변이발발한후 만이년이지나간이때병참기지 조선의중요성은 다시 말할것도업거니와 신동아건설의새단계에들어선 그사명은 새동운의미에서 중요성이더하게되엇다 즉 군사상 운수로(運輸路)로서의 역할은 물론조선은실로교통상으로 상업방면 그외모든방면으로보아 동아신건설의최첨지가되엇다 목포、군산、인천、진남포등각항과 상해、천진청도의각항을연결하는 황해호수화(黃海湖水化)의『일지루-트』의계획에 따라전기각항구의활동과 그 인근지의활동은 실로괄목할정도로 그비약적발전상을보이어 달성한 조선의발전을 하루동안에와정할기세를보이고잇다 조선내외의모든물적、인적자원은 서북조선각항구로몰려가고 내지재벌의진출은 종래의방향을변경하여 충남부조선을단번에건너뛰어 모두가서북조선지방에진출하고잇다

동아신사태에처한오늘 조선발전이 다소기형적으로되는것은 면할수업는일인바 중부조선에처한 충남에는어떠한영향이잇슬것이며 도도당국으로서는 어떠한계획을 세워야할것인가 이점에잇서서 도민으로서는관심을가지지안흘수업다 이에 천견을약술하여참고에이바지하고자하는바이다

産業擴充問題

기하급수로 늘어가는인구의증가에따라 금일의각종 산업부문은 실로천태만상의발전상을 보여주고잇다 땅덩어리를 상대로하는 농업만으로는 벌써이業의 생활을 유지하지못하게되어 여기에서 공업의발전이생기고 상업의거래가잇게되엇다 땅덩어리를 상대로하는농업과 기게를 상대로하는공업과 사람을 상대로하는상업등은 우리생활에 절대불가결할 삼대요소이다 그러므로 한나라 한지방 한도시를막론하고 이요소를 구비치못한곳은 근대국가 근대도시로서의 건강체가될수업는것이다 선진각국의오늘날 경이적공업의 발달은이를 충분히 증명하고잇다。

그러면 조선의현상은 어떠한가?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우리는 농업본위인 조선땅의 목가적(牧歌的)정서에 잠겨서 삼천여년의 긴꿈을 깨트리지 못하고 가장 원시적생산형태인 농업만을 절대한천직으로 지켜왓다 모든부문이뒤떨어진조선에서 더욱 우리네의살림이 유달리빈약하다는것은 조선땅의 산업이 순조로운 발전을 해오지못햇다는것을 말하고잇다 이러한견지에서 총독부에서도 농공병진(農工併進)정책을세워오는터이며 더욱 금번사변을계기로하여 근대공업의 괄목할만한발전을 보게되엇다。

이때에 충남도의 산업계를재검토하여 명일의발전에 자하는점이잇다면 무의미한일은 아니겟다

× ×

충남도의총면적은 오백이십오방리로써 그중농업의경지면적은 논(畓)이십륙만이천칠백구십팔정보 밧(田)팔만이천칠백십팔정보에달하여 도내인구한호당 약일정보에해당한다고하며 도내직업별인구호수는 농업이단연 제일위로 일백이십사만여에 달하여 도내 전인구의 팔할사『퍼-센트』에달한다고하니 나머지십륙『퍼-센트』가 상、공、어업과 공무기타의 직업을가진셈이된다 그러면이수자로보더라도 도민의대부분이 농업에종사한다는것을 알게되는동시 매호평균일정보 박게되지안는경지면적을가진도민의 부력상태를 가히짐작할수잇는것이다 그중공업에 종사하는인구는 이만이천여명으로 도내인구의 약일『퍼-센트』에해당하는 빈약한현상이며 이를생산별로보아 농산물이 구천사백만원 [illegible]

지난오개년간의 충남도 공업계의 추세를보면 직공오명이상을사용하는 공장수효가 소화구년도에 이백오십이개소이던것이 오년동안을 지나온 십삼년말에는 겨우 [illegible]

× ×

[illegible] 복리증진에 절대불가결한 공업인소치를 일반도민에 인식시키는동시 당국자의 부단한 지도가 업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볼수는 업슬것이다 공업은 다른 산업과 달라서 특수한기술과 필요한지식이 업서는 안되는것이므로 지도 연구기관이 업서서는 안된다。

× ×

그러므로 공업의지도기관이잇는곳에는 공업이 흥성해지고 이기관이업는곳에는 그발전이지지부진할것은 정한일이다 대구의 부립공업연구소(工業硏究所)가설치되므로 말미암아 대구견직물계에 일대혁명을일으키엇고 평양에 공업시험소(工業試驗所)가 설치되어 평양특산품의 은칠에 적지아니한 효과를 주엇다는것은 조흔예가 되는것이다。

× ×

공업의지도기관이 업시는 공업에대한 지식이업고 공업에대한기술자가업서서는 기업가의 공업게으서를위하여 공업연구소설치를 제의하는동시 도민의자각이해아래 하루바삐 이문제의실현에대한 강력한 압력이 잇기를 바라며 당국자의 시국에대한 모든정세를 통찰하여말하는『예산난』이라는상투(常套)는집어치우고 한거름나아가 도민의복리증진을도하고 생산확충을기하여 농공병진의구현화를 실현으로써 주기를바라는바이다-계속

(忠南駐在記者)

水原

水原懸賞雄辯大會

▲時日 十一月十一日下午七時正刻

▲場所 水原邑公會堂에서

申請期日 十一月十日正午까지

參加資格 一般男女 (每人十五分間)

題目 防共防諜에關하야

◇主催 朝鮮防共協會水原支部 全鮮思想報國聯盟水原分會

◇後援 水原邑、朝鮮日報社水原支局

健康回復의最好期!

今年은 三十年來의 大暴暑 이엿스므로

▲누구나 더위로因하야 胃腸이 衰弱해지고 元氣와精力이 衰退되엿슬뿐 아니라 身體各部의抵抗力이 全部弱해젓습니다

▲萬一 今年가치 特殊한더위로因하야 衰弱해진몸을그대로두면 당장에는 別일업는것갓흐나 身體의抵抗力이弱해진틈을타서 不知中 肺病、不足症、체증、속병、神經衰弱、陽氣不振等 重病에걸니기쉬울뿐아니라 겨울에감긔나 肺炎에잘걸니고 咳嗽、肢節、腰痛等이생깁니다

▲그럼으로누구나 新秋服藥當節인 只今곳百補丸을써서 虛弱해진身體各部를補하시요、아모리 虛弱해진몸이라도 只今百補丸一劑만쓰면 食事가倍加되고 陽氣가倍加되고 氣血이旺盛하야 體重이增加됩니다

食慾倍加 陽氣倍加 氣血倍加

百補丸의三大特徵

一、百補丸은 數千年來累試累驗의 秘方靈藥임으로 洋藥과가치 그效力이 一時的이아니고 永久深奧합니다

二、朝鮮에서 漢藥洋藥을勿論하고 斷然第一最高로 만히팔니는藥도 百補丸뿐이요 朝野各界有志名士가 愛用推奬하는것도 全部百補丸뿐입니다

三、한제만쓰면 全身五장六부가 다조와지고 年年連服하면 事實無病健康長壽합니다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少年百補丸 一劑 五圓

(無料進呈) 어느것이나三劑以上 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에一劑無料進呈

百補丸

婦人의 자궁병、경도부조、대하증、냉증엔 婦人百補丸 단산한부인도생남생녀하는령약이제일

京城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

電話光三二三番・六二三番・三三〇番・振替五番

長篇小說

사랑의 水族館【79】

金南天 作 鄭玄雄 畵

暖流·寒流(八)

달리던 자동차를 세워 노코 경히는 압서서 차에서 내렷다。

광호는 어떠케된 셈판인지를 몰라서 잠시 그대로『시ー트』에 안즌채 잇섯스나

『여기서 내리세요!』

하는 경히의 명령이 섞긴듯한 어조를 듯고는 그대로 남아잇슬수가 업서서『메ー타ー』를 물어서 차삯을 치르고 뎀뎀히 길우에 내려섯다。

차는 어둠속으로 사라저 업서지고 두사람은 길우에 잠시 서 잇섯다。

그러나 오래 지체되지는 안햇다。

『이리로 가서요!』

경히가 가리키는 곳은 역시 제집이잇는 삼청동 방면이엇다。

비로소 광호는 경히의 마음을 이해하는듯 하다。

(그는 이대로 헤여지기가 실흔것이다。제집압까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픈것이다。)

총독부의 긴 담장을 끼고서 인처기가 드믄 조용한 밤거리를 걸어 간다。

『아까 이야길 계속해 주서요!』

그러나 광호는 경히의 요구에 선듯 응하지는 안는다。

그는 아직도『호텔』의 정원에서 제가 당한『모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잇는 것이다。

『나는 축음기처럼 자유자재롭진 못합니다。듯고 시플땐 듯고 듯기 실흘땐 끄처 버리고…그러기 위해선 축음기와 레코ー드판이 잇지 안습니까?』

그러나 이야기 하던것을 중단해 버린것은 광호자신이 아니엇든가? 그러므로 광호의 이러한 트집은 이야기에 대한것이 아니라,『뺀치』우에서 얻어텃던 바른팔을 뿌리처 버린데 대한 항의가 분명하엿다。

(손놋하나 얼씬 할세라, 몸을 경게하고 행동을 경시하면서 ……사나이란 기게처럼 스윗치만 대이면 짓거려 대는 그런 물건으로 알고 잇는가?)

경히는 광호가 트집을 거는것이 반가웟다。

그트집,——그것은 결국 사나이가 처녀에 대해서 애정을 고백하고 정렬을 표시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적이 아니냐!

그럴수록 경히는 사나이의 초조하고 다급한 신경을 이해할수가 업는것 가탓다。

(여자란 역시 남자보다는 영리하다。정서와 감정을『리ー드』하고 그러면서 타오르는 열정과 욕망을 적당히 조절할수잇는 그러한 지혜로운 행동을 취할수 잇고……)

이러케 생각하면서도 경히는

『그럼 이야기는 그대로 중단해 버릴 참이서요?』

하고 제의 생각과는 딴것을 이야기하면서 걸엇다。

『하고 시플때에 할수 잇슬테지오。』

『흥!』

하고 사나이의 귀에 들릴수잇도록 코방귀를 한번 뀌어본다。

『난 이리로 넘어 가겟습니다。』

하고 의전병원쪽을 바라보며 광호가 말한다。노염이 섞긴것처럼 보이라고 말소리는 퉁명스러웟다。

경히는 다소 당황한다。사나이의 마음을 너무 동기친것이라고 이내 반성하는 마음이간다。

광호는 돌다리를 건널듯이 발을 멈추고 웃둑 섯다。

『가회동 가는길에 그것 뿐이서요? 공원으로 돌아 가서도 되잔허요?』

『가고시픈 길을 자유롭게 취하는거지오。』

『경힌 그럼 무서운데까지 혼자 가란 말이여요?』

『그게 소원이 아니서요?』

『성겁겐 구시네!』

하고 경히는 광호의 팔을 낙구채듯이 하여 가던 길로 섬큼 성큼 끌고 간다。

『내집까지 데려다 주서요! 그게 신사의 에티켓입니다!』

서너발자국까지는 경히의 힘에 광호가 터덕 터덕 끌리어 갓스나 어내 광호의 자세는 바루 섯다。

발자국이 고르럽게 되엇슬때 경히는 한팔을 광호의 엽구리에 께고서 몸을 의지한듯 하며 걷고잇섯다。

마주 오는 사람이잇서도 경히는 사양하지 안코 그대로 사나이와 팔을걸고 걸어 올라갓다。

『무섭지 안습니까?』

경히는 대답지안코 머리만 흔든다。

『성겁지 안습니까?』

체온이 옴아가고 번처온다。

그래도 경히는 대답지안코 도리질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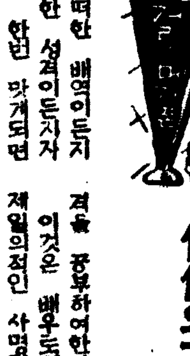
경히의 집압까지 와서 광호는 발을 멈추엇스나 경히는 듯지 안햇다。

『고개턱까지 모서다 드릴테얘요!』

그리고는 다시 사나이의 팔을이끌고 우으로 빼든길을 올라간다。

俳優와「만네리즘」

…南林…



어떠한 배역이든지 어떠한 성격이든지자기가 한번 맛게되면 그배역 그성격을 스스로 연구하고 또한 탐구하여서 훌륭히 양식을 가추어 표현하는데 소위 연기자로서의 독특한 예술이 구성되는것이다。

그러니까 연기자는 될수만 잇다면 다종다양의 인간을 연구하여야되고 또한 가급적으로 각가지의성격을 공부하여야한다。

이것은 배우로서의 제일의적인 사명일것이며 나아가서는 교양잇는 연기자로서의 결코 소홀히 하지못할 하나의 뚜렷한상식일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연극 혹은 영화계를 볼것가트면 이러한 상식의 선을 파괴하고 심한 경우이면 배우스스로가『만네리즘』의 구렁텅이로 떨어저들어가려고하는 조치못한 경향이 눈에 거슬리게됨을 가끔본다。

가령 어여쁜『히로인』으로서 자기가일마만큼 이름을 어들수잇섯다면 그는 언제나 어여쁜『히로인』만을 꿈꾸어서 하려고한다 또한 관객혹은 관중에게 박수를 기대할수잇는 눈물한『히로ー』의 역을하여서 다행히 그러한 조류의 역을로서 자기의 이름이 얼마만큼 뚜렷하여 젓다면 그는언제나 파거의그떠한 조류의『히로ー』만을 하려고한다。이것은 물론 배우스스로의 무식을 폭로하는것외에는 아무것도아니다。

연극이나 혹은 영화의 극히미숙한 초창기에 잇서서는 이러한배역을 제작자들도 어찌할수업시 만성하엿다。그러나 오늘의 우리들의 연극이나 혹은 영화는 아직젓 엣날의 민습을 그저 되푸리하고 잇슬수잇는 그러케 유치한 시대에서 방황하고잇지는 안타。배우들의 가장 올흔질과를 가저오는『만네리즘』을 오늘의 연출가는 구태어 장요하려고들지 안는다。그러나 자기의 배역에 불만을느끼고 돌아서는 연기자가 잇는것을 못도할때 그한사람의 비속한 교양과 인격을 슬퍼한다는것보다도 한거름 나아가 조선영화계의 명일을 생각할때 압담한 생각이 아니날수업는것이다。

演藝와 娛樂

朝鮮춤이야기

古典藝術의 一大精華 世界에자랑할「우리춤」❶

朝鮮音樂舞踊研究會 韓成俊 氏談

춤의 來歷

조선춤의 역사는 대체얼마나되엇나? 조선춤은 어디서어떠케 발전되어전하여 나려왓나? 이러한 질문을 나는여러사람에게 가끔 밧습니다만 나는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가업슬뿐 아니라 섣혹 얼마만큼 안다고하여도 나는 그저『사람이 생겨나면서부터 춤은 잇섯다!』 어러케 대답해 왓습니다。물론 이러한 대답은 완전한 대답이라고는 할수 업슬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은 내가 굿게 밋고 또한 그러케 철저하게생각하고잇는니만치 이이상더 명확한 대답은 할수가 업습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가 춤입니다。춤 아닌것이업슴니다。걸음 것는것이라든지 하다못해 안는것이라던지 눕는것이라든지 이것은 모두가 춤입니다。춤이 될수가 잇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수잇는 모든 동작(動作)을 거기다가 장단만 마친다면 그것은 모두가 훌륭한 춤이 될수 잇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춤의 역사란 물론 그것은 불교(佛敎)에서 기원한것이겟지만 춤은 더 올라가서 우리들이 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생기엇다고 생각하는 편이 올흘것입니다。

『왕꺼리』와『대감놀이』

조선춤이 불교에서 나왓고, 다시 궁중으로 들어갓다가 일반 민간으로 퍼지게 된것은 오늘의 한간에 남어잇는 고전무용(古典舞踊)을 보아서도 넉넉히 알수가 잇는것입니다。

『무당』의 춤에『왕꺼리』니『대감놀이』니 하는것이 잇습니다。이것은 모두가 조선춤이, 궁중에서 나와다는것을 가장유력하게 증명하는 조흔재료라고 생각합니다。

❶왕꺼리 『왕꺼리』라는것은 왕을위해서 추든 춤이라지만 사실은 엣날 조선의 임금이 추시엇다고해서생긴 옛날춤입니다。물론 오늘의 무당들속가지 그러케 뛰면서야 추시엇겟습니까。아마 조흐심뭇에 취하시어 점잔호시게 팔이라도 가만히 처드신것이겟지오。이춤이 오늘에와서 변하고 변해서 소위 무당이 전해나려오는『왕꺼리』가 된것입니다。나는 이것을 태평춤(太平舞)이라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리키고 잇습니다。

❷대감놀이 이춤은역시 무당이 전해나려오는 궁중춤인데 임금님 아래의 신하들이 추든 춤입니다。

임금님께서 흥에겨우시어 팔을 드시는데 어찌 그아래의 신하로서 가만히 서서 잇슬수가 잇섯겟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래 신하들이 임금님이아페서 춘 춤이 변하고 변해서 오늘의 무당이 추는『대감놀이』라는것이 되엇습니다。『대감놀이』도『왕꺼리』도 모두 형식에잇서서나 장단에 잇서서나 지금 무당이 가지고잇는 그러것과는 전혀다릅니다。

우에서도 말햇바와가치 나는『왕꺼리』를『태평춤』이라고하여서 춤이름도 고처엇고, 장단도 자지내엇고, 형식도 퇴천 고전에 충실하도록 고처엇습니다。

두어개에다 열(日) 월(月)을 부치고, 색색오른만두, 세통다리 소매가잇는, 활옷을입고, 그야말로 팔하나 드는것과 다리하나 떠어노는것을 점잔케 우유하게 추는 춤입니다。(계속)

◇太平舞……보통『왕꺼리』라는 춤입니다。지금에와서는『태평춤』이라고 고치엇습니다(寫眞은韓成俊氏)

凸凹問答

【問】겨울에 눈이 오는까닭은?

【前回의問】자동차『까솔린』이 귀해진까닭은?

【答】자동차도 피가나서 좀쉬어볼려고

本社事業部後援으로 朝鮮聲樂研究會地方巡演

一流名唱을總網羅한豪華陣

심청전(沈淸傳)혹은 춘향전(春香傳)등을 발표하여 어저버려가는 조선의 고전예술을 스스로 발굴하고 나아가서는 널리전달하기에 노력하고잇는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에서는 이번에 다시 원대한포부와 기대를가지고 본사사업부 후원으로서 서북조선을 비롯하여 동만(東滿)일대로 장기 순회공연을 떠나기로되엇다。

이번 순회공연에 가지고나갈 예제는 이미 경성안에서도 여러번 재상연하여 일반에게 대호평과 갈채를바든 김용승(金容承)씨 각색 춘향전(春香傳)과『심청전(沈淸傳)』등 다 망라되고 여기에 배역된 명창은 동성악연구회에서도 가장우수한『멤버ー』만을 추린터한 그야말로 엄대호화진용이다。

더구나 십일월 십이일부터 당안을걸치어 동만과 서북조선일대로 장기순회공연을 떠나기는 동성악연구회로서도 이번이 처음인만큼 그곳인사들의 기대와 성원도 벌써부터 크지아니할 이만큼 떠나는편에서도 일종의 긴장과흥분을가지고 뜨거운연습에 장도의 첫길을 염개되는 명천(明川)을 향하여 이미 출발하엿다。

이제 장도에오른 동성악연구회의 명창진용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男子部)▲金昌龍▲吳太石▲金演洙▲徐淵九▲林鶴成▲姜滯元▲趙永學▲丁元燮▲趙相鮮▲金世俊▲金光淳 ▲李正業 ▲朴南宗

(女子部)▲朴綠珠▲林素香▲曹弄玉 ▲金 蓮▲金玉蓮▲成璣香▲韓山月 ▲朴桂順

映畫檢閱制를非難

『컬럼비아』大學映畫科長

【紐育發同盟】현재의『아메리칸』에잇서서의 영화검열은 아동에게 영향을끼치리라 생각되는 작품에대해서는 더욱더엄중한간섭을 하고잇는바 여기에대하여『컬럼비아』대학의 영화과장(映畫科長)『랏셀·포ー타ー』박사는 동영화의 연모보고에 잇서서

『헐리웃드』의 영화는『컬래트롤 상대로하여서 제작한것으로서 여기에검열이란 수단을써가지고 판헌이 간섭한다는것은 영화업자에게 대하여 불공평한세금을 물게하는것과 갓다。아동의 영화에 대하여 판헌이 근심되는바가 잇다면 판헌으로서는 마땅히 다른방법을 취해야될것이다。』

이가지 통철히 말하여 현재의 검열제도를 비난하엿다한다。

海外珍版集

窓업는『빌딩』

【데드로이트發同盟】 등창어 업는건물(建物)이라고 하면 오늘에 잇서서는 상상조차 할수업는것인데 그것이 미국에는 별로 이상하지도안케 흥행히 존재하고잇다는 이야기가 잇다。이것들은『레드로이드·에디손』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하는것으로 정연이이백사십팔척 폭이 어심척으로서 여섯치이나되는 평강히커다란『빌딩』인데보통다른『빌딩』과가치 내부각층에는여러가지 사무소가잇스며 각기 아모런 저장도업시 집무하고잇다한다 그런데 이『빌딩』에는 창이 업서도 채광이 충분하며 그외에 냉방환기(冷房換氣)장치까지 설비되어잇다고하니 별로 걱정될것도업다 그러나 한가지가장문제가되는것은 창이업스면 대체어떠케 광선이통할수잇는가하는것이나 이것도문제될것이업다 각종의사면이 모두 유리벽돌로 착혀저 잇다는것이다『유리벽돌』이라고하면 좀 이상하겟지만 벽돌것은 당연하것이어서 사연은모두 열어제처노흔것이나 벽돌다룰것이업스며 환한것은 조그만장에다가 비할것이못된다고『에디손』등에디손』회사가별내고 잇는것도 당연하다。그런데 회기는 어떠한가하면 송유자인『에드로이른·에디손』회사에서는『채망·냉방이모두 완전한 조건이 구비되어잇다』고뽐내고 잇는 모양인데 과연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알기위하여 목하조사중이라고한다。

海外短信

戰爭에돈모으는米國

【紐育發同盟】전쟁하는데 돈이 얼마나드느냐? 전쟁은차라리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하고잇는 미국인 특히미국의 주식가(株式街)인『올ー』가에서는 구주전쟁이 폭발되자 벌써부터 전쟁경기를 꿈꾸고잇는데 유사이래 대전쟁이던 제일차구주대전의 비용은 미국 경제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각참전국 정부의지출을 근저로할지라도 이천칠백오십억불이라는 바대한거액에 달하며 이것은 일천구백십사년 당시의 미국의전재산을 사들이나 초과되는것으로서 전쟁에 사용햇던 돈으로 납북의 미국대륙을 거의다 매정할수 잇다고하다 또 이 돈에다가 사유재산의 파괴 인명의 상실등 무형의 요소까지 계산한다면 일본간에 백만불을 소비하엿스며 웃게는 여조 이천사백륙십사억『딸러』라는 초천문학적 수사자에 달한다고한다。그러키때문에 전쟁은 무엇무서운것이라고하면서도 제이차 구주전쟁이 일어난데로에 놀라만한돈의 맷『퍼ー센트』는 미국으로 굴러들어올것을 기대한다고 만흔미국인들은 은근히조하하고잇다한다。

庭球王『밧지』君의戀人 軍屬으로出征志願!

【紐育發同盟】미국『데비쓰·컵』선수로부터 작년십월에 직업선수로 전향하이래『푸로』게에잇서서 제일위를차지하고잇던『칠덴·바인스·패리ー』등을 이기고 영예에취하여 어찌줄을 모르던『밧지』군에게도 한가지고통이 생기엇다。즉 그가 은근히 사랑을 속삭이고잇던『아렌·구렌』이라고하는『시드니ー』출생의『와ー너』사의 여배우로써최근각방면에출연을 바드면서잔변도의『진서ー』로란연 인끼를독점한『부론드』의여배우인데시기이 여배우가전쟁에 개시되자직시 자기어머니가 살고잇는 영국(英國)으로 돌아가서 군대부상병자동차의 운전수가 되겟다고말하엿다한다 그래서『밧지』군의깜짝놀래서 그러케까지 하지안허도 조치안호냐고하면서 가지말기를권고하엿스나 피녀의 애국심은 맹렬하여 애인의 라이르는말도 듯지안코마침내『유콘』을 출발하엿다고한다

『바ー치칸』新聞大好評

【바ー치칸發同盟】『로ー마』의 일작에 엄연히 일국가를 형성하고잇는『로ー마』법왕청(法王廳)의 소재지『바ー지칸』시에서 발행되고잇는『옵셀바트ー레로마ー노』란 신문은이번 구주전쟁이 일어나기전까지는 겨우일만칠천부박게 발행못하엿던바 전쟁이 일어나자 별안간『로마ー노』지는 일약 십이만사천부까지 기록을 돌파하엿다。그것은 무엇보다도 동지에는 생생한 전쟁기사가 풍부할뿐아니라 기사가 극히 객관적인때문이라고

柊林片信

▲RKO의『스탄·로ー렐』파『올리버ー·하ー디』의신주연영화『보리스·모로스』제작『낼은너마』는 드디어 완성되엇다。이것으로서 이명『컴비』와 RKO사와의 계약은 끗낫다고。

▲『이십세기·폭스』는『샤ー리·템플』주연『월더ー·랑그』감독『파랑새』와『알리스·페이』주연『헨리ー·킹』감독의『그리운옛날의 뉴ー욕』과『헨리ー·폰다ー』주연『존·포ー드』감독의『성난포도』등 세작품을 방금 동시에 제작중인데 이것으로는『크리쓰마쓰』주간으로부터 내년봄에 걸치어 공개할 예정이라한다。

▲RKO의 신작『〃노틀담〃의 꼽추』를 완정한『윌리엄·디탈레ー』감독은『와ー너ー』에 복귀하여서『에드워ー드G·로빈손』주연의 신작『六○六』의『크랑크』를 개시하엿다。

▲『컬럼비아』사는 금명년도의대작『엘리자베ー스·마ー지』의 저명소설『자유의나무』를거장『프랭크·로이드』감독에 의해서 영화화하기로 결정하엿다 이것은 미국역사상에서 유명한 쟁은 개척자의 국적생애를그린것으로서 박콜그룹의『스탑』을 편성하기에 준비를 진행하고잇다。

라듸오 十一月八日(水)

▲午前七時五○分 宮城遙拜
▲同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
▲同一○時三○分 氣象通報 料理製法『홍ー케이』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오늘의아두실것
▲午後零時五分 吹奏樂 (레코ー드)
▲同零時三○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겨울과皮膚』 醫學博士 吳元錫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 童話『빈정심그릇』 吳世昌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講演『科學界의토픽크』 京城高工教授 安東赫
▲同八時 野談『薄命女』 金灌雲
▲同八時三○分 라디오드라마『授業料』三景 禹壽榮原作 相模潤色 韓

할머니 卜惠淑
玉姬 金英姬
柳大根 陳源在
安先生 柳稱芳
福男어머니 姜貞愛
柳主事 李令源
며ー리장수 尹旭
順子 安英子
춘식 金純完
父 兪象浪
母 李愛映
順福出 李景白
効果 李廷薰

▲同九時一○分 京謠歌謠 一、遊山歌 二、豐年歌 三、진아리랑 任彩鳳 細
▲同九時三○分 短篇講談『雷峯忠善』 任德成
▲同九時四○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時一○分 初步國語講座 (二九)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一一時 (仙)小學生時間 ▲午後零時五分(東)歌謠物語 ▲同六時四五分(城)產業뉴ー스 【第三】 ▲同八時 ▲同八時三○分(東)長唄 ▲同八時五五分(大)義太夫

國手會戰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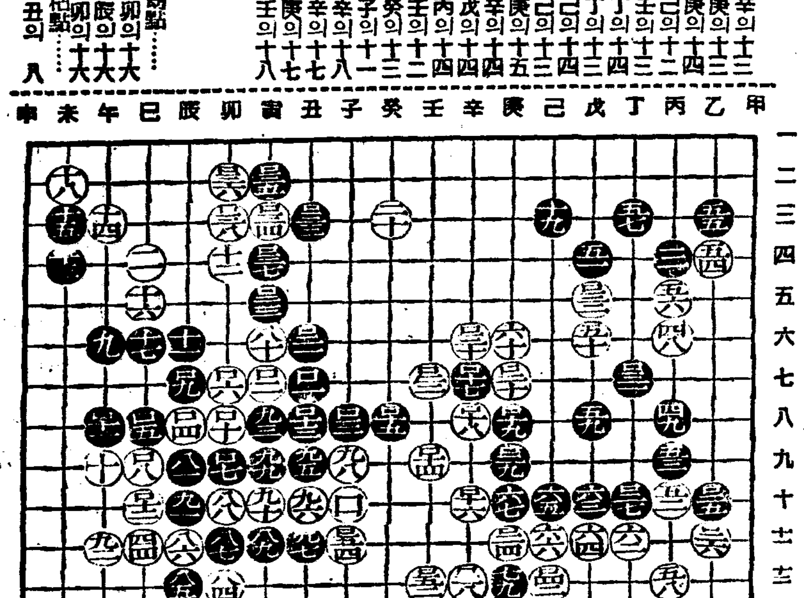
局勢는愁雲慘澹 黑「辛의一三」强筋

觀戰記 權秉郁

春秋에 攻彼顧我라하니 豈不愼乎아。黑이 東部戰線에 幾功을 告하지안코 突然 西邊으로 拔手하니 경차 어떠한 心算이 潛在한지……? 一三九를 辛의 一三으로 辦濟하니 이는 마치 黑陷陣營入兵하나 實은 强筋한 手法이 아니고는 到底히 容易치 못하다 白은 勿論 庚의 一三으로 黑孤軍을 驅逐하는것도 有理하나 그대로 順流而下하면 어떨까。黑에 또 再次제처서 反擊肉迫하니 白은 따고보앗다 여 劇的場面은 碁術의 變幻을 비녀어 追想할수잇다 黑一四三이 連하지안코 一字로 直引하니 有何意味일가 白一四四는 丁의 一四로 尻餠을꾀하니 黑이 따라 封미 備한다 어로조차局勢는 愁然한 愁雲이 慘澹하다。黑一四五以降으로 乃至 丙의 一四까지는 그리 高尙한手가 아닌고로 그만 却之하다 白一五四는 完全한自作家를 成立하엿스니 아모리男手라도 破壞가甚難할듯하다 黑一五五가 辛의 一八로前地法을利用하여 侵略을 敢行하나 東部에危急處가 잇지안흔가 白一五八은 防備가너무 周密한 感이 잇다 大勢는 決定의態度가 隱映하데아마도 黑은白玉有暇之瞬을 免하기 어려울듯?

【11】

●一三九 辛의十三
○一四○ 庚의十三
●一四一 庚의十四
○一四二 己의十二
●一四三 壬의十三
○一四四 丁의十四
●一四五 丁의十三
○一四六 己의十四
●一四七 己의十三
○一四八 庚의十五
●一四九 辛의十四
○一五○ 戊의十四
●一五一 丙의十四
○一五二 壬의十二
●一五三 癸의十三
○一五四 子의十一
●一五五 辛의十八
○一五六 辛의十七
●一五七 庚의十七
○一五八 壬의十八
……劫點……
●一五九 卯의十六
○一六○ 辰의十六
●一六一 卯의十六
……粘點……
○一六二 丑의八



白 任佑植 ★ 黑(先) 閔仲植 (四目半出)

平壤난리

申鼎言 ⑤

連續軍談

老將軍雪中露體(二)

북한성장 고순이 북한성으로부터 돌아온뒤。

문무왕께서 한자도총관(송寶都摠管)유덕민(劉德敏)으로 사신을 삼고 국서를 수어 당나라에 보내섯다。

그 국서에는 북한성을 위기일발(危機一髮)에서 다시 회복한것、압록강이 차단되어 잇는것、천합소문이 또 다시 침범하려는 준비가잇는 전후사정을 자세히 썻다。

유덕민은 그 국서를 가시고 당일로 출발하여 황해(黃海)의 수로(水路)로 떠낫다。

그것은 압록강이 남생(男生)에게 차단이된 까닭이다。

유덕민이 황해의 거친 물결과싸우며 여러날만에 장안(長安)에 일으려 당고종(唐高宗)에게 국서를 올리엿다。

당고종이 문무왕의 국서를 분뒤에 유덕민을 불러 배알케하고 천합소문의 동정을 더 자서히 물엇다。

유덕민은 북한성을 천제(天祭)의 음덕으로 구원한것을대강말하고 특히 압록강이 차단되여 당나라와 신라의교통이끈처것을 들어 자서히 말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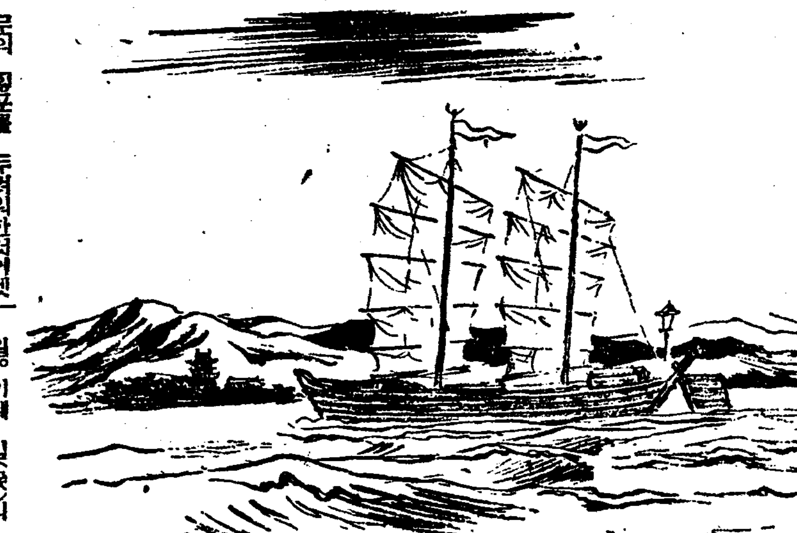
유덕민은 여러말중에도 천합소문이 당나라를 깔보고 그러케 압록강을 차다하엿다는것을 매우 역설하엿다。

그것은 당고종의 마음을 크게 충동이는 뜻이엿다。

당고종이 유덕민의 말을자서히 듯고 문무제신을 향하여 매우 노한 기색으로서

『허ー。보장왕(寶藏王)이어찌 이대지 당돌할꼬。천합소문의 횡포를 두려워한것이겟지。당초에 무명(無名)의 군사를 일으켜 자주 신라를 침범하는것도 패심한일이어늘 허물며 상국(上國)의 교통을 끈는것은 더욱이나 용서치못할일。이때 짐(朕)의、황군(皇軍)을 보내여 보장왕의 친약정책과 천합소문의 시군(弑君)한 죄며 상국을 모욕한 죄를 아울러 응증하여 천하를 경게하지 아니할수 업도다。』

하고 고구려에 출정하기를작정하엿다。



그래서 먼저 유덕민에게 국서를 주어 신라로 돌려 보내엿다。

그리고 당고종은 즉시 소정방(蘇定方)으로 요동도대총관(遼東道大總管)、계필(契苾)으로 파도행군대총관(浿道行軍大總管)、류백영(劉伯英)으로평양도대총관(平壤道大總管)、소사업(蕭嗣業)으로 부여도총관(扶餘道總管)、임아상(任雅相)을 삼고 정병(精兵)삼십오만명을 동원하엿다。

또한 태상감(太常監)에 명하여 대군의 출발할 길일(吉日)을 택하게하엿다。

이때 천합소문은 북한성의 보복을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군사를 다시 훈련시키고 또한편으로는 신라의 동정을 살피엿다。

그리는중 문무왕께서 당나라에 유덕민을 보낸것과 또 당고종이 소정방등이하 삼십오만대군을 동원시키엇다는 자서한 소문을들고 여러하엿다。

천합소문이 그자서한 소문을듯고

『하로강아지 범을 무서워하지 안는 격이로구나。』

하는말로써 당군이 동원되엇다는것을 코 우슴으로써 비우섯다。

그리고 도성(都城)을 비롯하여 당의 대군을 수륙(水陸)으로 방비할것을 착착 설비하엿다。

유덕민이 당고종의 국서를가지고 역시 황해의 물길로 신라와 문무왕께 당고종의 국서를 올리엿다。

문무왕께서는 그 국서를바드시고 여러 문무제신을 불러 어전공의(御前公議)를 여시게되엇다。

그것은 당나라 당고종의 국서내용을 자서히 검토하자는것이엿다。

당고종의 국서중에는 신라에서 생각도 아니한 엄청난 사연이 쓰여잇는 까닭이엿다。

그러므로 여러의견으로써 신중히 결정하지안흐면 아니될 중대한 정세에 직면하게된 까닭이다。

여러 문무제신들은 당고종의 국서에 대하여 가부간 얼른 말을할수가 업게되엿다。

파연 크나큰 군국대사(軍國大事)임에만아니라 한거름더 나아가 도리여 신라의 흥망 판계가잇습이다。

大陸劇場

11月7日ヨリ上映時間表

百萬弗大放送	10·30		
ニュース	11·59	3·23	6·50
素晴しき哉彼女	12·19	3·43	7·10
百萬弗大放送	1·54	5·13	8·39

黃金座 日活映畫

十月二十八日ヨリ 十一月八日マデ

ニュース	10·00	1·05	4·10	7·20
土と兵隊	10·10	1·20	4·20	7·40

午前中入場者50せん均一

京劇

新興映畫秋季豪華番組 ○四日ヨリ大公開
第一回 朝十時
第二回 後一時
第三回 後四時
第四回 後七時
鶴見祐輔不朽の名作 改訂『母』
京都總動員 狸御殿
○夜は込みますから一刻も早くいらつしやい

若草東寶映畫劇場 電話本局 三三四番

（11月5日より上映時間表(早朝割引)）(日曜日は9時30分マデ)

ニュース	12·25	3·40	7·00	
火星地球を攻擊ス	12·35	3·50	7·10	
世紀を築く(豫告篇) サブマリン爆擊隊(豫告)	10·45	2·00	5·10	8·35
東京の女性	11·00	2·15	5·30	8·50

(サブマリン爆擊隊十一月十二日有料試寫會)

明治座 松竹映畫

11月6日より上映時間表

殘菊物語	10·00		
狐	12·30	3·57	6·45
殘菊物語	1·07	4·07	7·17

桃花劇場

十一月七日ー九日 連夜二回一時七時始映 特別料金 階下三十錢 階上廿錢
マスコツト社作 連續冒險大活劇 ハリケーン×プレス解結篇 主演 ジョン·ウインテス ファースト·ヂヴインス
空中冒險連續大活劇 暗黑街空襲 主演 ジェームス·ブレーヴィン
新興キネマ社特作 親なればこそ 主演 浦邊粂子 美鳩まり
合同映畫社提供 モンティ快速百萬哩 富嶽王モンティ·バンクス
短篇 ハリキレ人生

優美館

十一月八日より大公開
劇團の重鎭!藝術の精華!名劇を織り出すのに全力を捧げた人々の雄叫び!就後の皆樣に敢てその眞價を問ふ堂々四十餘名の大陣容を網羅した
劇團 金姬座大公演
金振門作 愛慾の十字路 全四幕
其他 喜劇幕間
唱劇界明星 高俊成 賛助出演
各道才談

東洋劇場

劇團豪華船公演 十一月四日밤부터
李雲芳作 〃ユ女子의放浪記〃 三幕五場
名匠李雲芳氏가誠實한態度로서그려낸한女人의放浪의記錄이다 苦難과逍遥의길을突進하는女子들의피와눈물의叙事詩다 晩秋의劇壇에東劇이絶對自信하고여러분의게보내는感激의一大雄篇이다!
朝映名花 韓銀珍孃 斷然出演
宋影作 喜劇〃男子廢業〃一幕
豫告 李瑞求作 〃물 제 비〃
電話光二一五四番 四四九五番

新富座

十一月七日ー九日 晝夜二回一時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下二十錢 階上十錢均一
松竹大船特作 炎の詩 監督 佐々木康 主演 桑野通子 上原謙 夏川大二郎
三映社特別提供品 地下の怪盜 監督 ウオルタフオド 主演 ジヤツクハルバート フエイレイ
京城撮影所特作 薔花紅蓮傳 監督 洪吐無氏 主演 文藝峰
次週 透明人間 出征讀

第一劇場

コロムビア超特作 ギャング總攻擊 監督 スペンサーゴードン·ベネツト 主演 ボツプアレン
コロムビア超特作 拳銃の挾擊 監督 JPマクゴウン 主演 ボツプアレン
コロムビア超大作 拳銃非常線 監督 スペンサーゴードンベネツト 主演 テイムマツコイ
戸田商事映畫社提供 大尉の娘 主演 水谷八重子
各社ニュース
(週)特別名畫番組でも大衆料金二〇、一〇